

**NO!**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절대 반대합니다

**YES!**

인천시민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다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5년은 인천투자해, Buy Incheon

2005 | 12







窓 2005

# 왕자님 납시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류 왕자(45·사진 맨 왼쪽)가 지난 11월 17일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했다. 영국 무역투자청(UKTI) 특별대표인 앤드류 왕자는 영국의 대표적인 건설업체 에이멕스(AMEC)사가 주관하는 인천 대교의 건설 현장과 홍보관을 둘러봤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의 활동 여건과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 굿모닝인천

2005.12 (통권 144호)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이부현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편집위원 김미희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하장원(시 공보관실)·김성환(자유사진가)·김정식(자유사진가)



04



12



42

02窓 2005 | 왕자님 납시옵니다~

04송년기행 | 월미산의 노을과 야경

08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 성공회 강화성당 (국가사적 제 424호)

12겨울철 건강관리 | 이색 춤 배우기

16함께 나누는 세상 |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

20이달의 공연 | 유리상자 콘서트 21th 사랑담기 외

24굿인천 굿뉴스 | 부평-상동 버스노선 신설 외

27의정소식 | 남북특위 강화연륙교 건설예정지 시찰 외

28군·구 풍향계 | 남동구 간석동에 복지관 개관 외

29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식 | 송도국제학교, 美 명문 사립과 제휴 외

30파이팅 인천 | 한국철도 K2리그 우승

31세·상·만·사·仁·川·萬·寫 | 모두들 잘 가시게~

32굿모닝 리포트 | 시청사 주변 환경개선

34브리핑 | 우리시 인터넷신문 'INCHEON@NEWS'

35동행 취재 | 제20회 일본인천회 전국대회

36동서남북 | 인천국제교류센터

38인천의 물류이야기 | ㉡ 물류 인력 양성

39Youthzine | 청소년 웹진 MOO

40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최고, 유일시리즈 | ㉢ 최초의 기상대

42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스물네 번째 사람 | 임남숙 원장

46독자마당 | '연말' & '크리스마스 풍경'

49Info Box | 지역건강보험료 조정됩니다 외

54아듀 2005 | 인천 뉴스 리뷰

58여기가 거기 | 문학산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광고문의 (032-440-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5년 12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눈 내린날 서꽃근린공원의 아이들



# 야(夜) 하다... 어둠 속 도시의 자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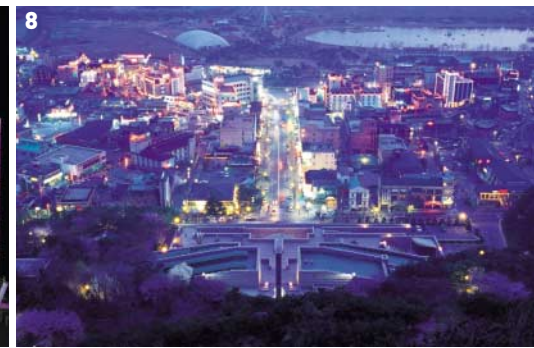
# 하 늘 에 서 하 늘 을 보 다

태양의 안식처 서해바다. 그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월미산은 묵은 해를 보내기 위한 '의식'을 치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반세기 동안 금단(禁斷)의 땅이었던 해발 108m 높이의 월미산. 최근 월미산 정상에 24m 짜리 전망대가 세워지면서 월미산은 노을 감상의 최고 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농악의 상모 돌리기를 모티브로 만든 외향답게 하늘을 향해 치솟은 전망대에 오르면 360° 회전하듯 빙 둘러 인천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



## # 태양과 수평선의 황홀한 입맞춤

아침, 낮, 저녁, 밤, 새벽. 하루는 이 다섯 풍경으로 이뤄진다. 서해의 저녁은 노을이 있어 황홀하다. 노을 감상은 인천에서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사치'다. 호사를 부러보기 위해 그림자 길어지는 시간에 서둘러 월미산 전망대에 오른다. 이내 하늘에는 금빛 물감이 풀어지고 바다에는 붉은 주단이 깔린다. 불덩이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던 태양은 이 저녁에 수평선과 황홀한 입맞춤을 하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로 찾아든다. 순간 노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색등(色燈) 하나씩이 켜진다.



1·2·4 월미산 전망대 3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앞바다 일몰 5 인천항 야경 6 신도구봉산에서 본 인천국제공항 야경 7 월미도 문화의 거리 8 송도 야경

## # 빛의 노래와 빛의 춤

땅거미가 월미산에 내려앉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망대는 '발광(發光)'한다. 전망대 외벽에 설치된 오색등은 밀려오는 파도를 표현하며 화려하게 변신한다. 항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송도국제도시, 영종대교... 맨얼굴을 했던 산 밑의 도시는 질게 화장을 하며 다시 깨어난다. 도심에 갇혀 있을 때 미처 보지 못한 도시의 빛이 산에 올라 보니 고운 색실로 여기저기 이어진다. 밤이 깊어져도 월미산 전망대는 외롭지 않다. 저 멀리 바다 건너 환하게 불이 켜진 인천국제공항 관제탑과 밤새도록 두런두런 대화를 나눈다. 밤은 하루의 또다른 시작이다. 도시는 어둠 속에서 찬란한 '내일'을 꿈꾼다.

글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 인천의 노을 view poin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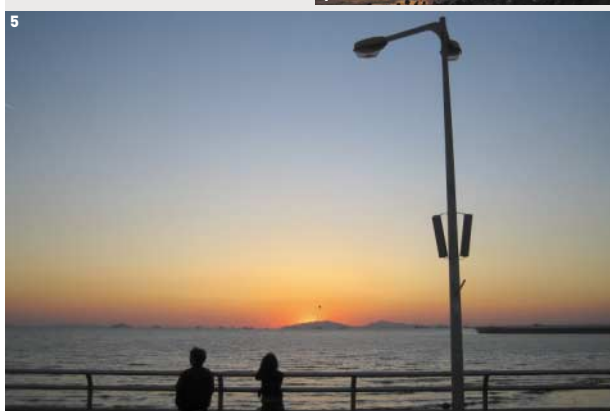
**강화도 장화리<sup>1</sup>** 강화도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장화리에는 노을 때문에 생긴 카페가 적지 않다. 순전히 노을을 감상하기 위해 카페에 들른 길손들은 카푸치노 커피에 크림 대신 '노을'을 타서 마신다.

**용유도 을왕리<sup>2</sup>** 바닷가에 버려진 녹슨 닻은 노을을 돋보이게 하는 소품들이다. 진홍빛 물감이 속절없이 풀어 헤쳐진 바닷물에 주인 없이 동실 떠 있는 조각배들이 철지난 바닷가의 여백을 채운다.

**강화도 적석사<sup>3</sup>** 사찰 뒤쪽 산에는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낙조대가 있다. 저 멀리로는 지친 태양을 가슴에 품은 석모도의 모습이 보이고 눈앞에는 석양에 비친 부처님의 불그레한 뺨이 보인다.

**선재도 목섬<sup>4</sup>** 해변의 굴곡이 아름답고 물이 맑아 선녀들이 내려와 먹을 감았던 선재도(仙才島)의 해변가와 연결되는 작은 무인도 목섬. 그 섬에서 이 시대의 로빈슨크루소들은 일몰을 바라보며 '자유'를 꿈꾼다.

**연수구 아암도<sup>5</sup>** 도심 속에서 노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동네 바닷가이다. 노을을 배경삼아 잠자리때처럼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부두에 정박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는 외항선의 실루엣이 한 폭의 그림이다.





# 동·서양이 절묘하게 조화된 ‘퓨전 성당’



용현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김유정(용현초·1)의 엄마 최연하씨는 수익금의 일부로 방 한 칸짜리 꿈터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며 동네 소년소녀가장을 돌본다. 계절이 바뀌어도 나들이를 나서지 못하는 엄마께 아들 기선(용현중·1)이가 특별활동시간에 배운 알공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엄마, 오늘만이라도 맘껏 사치를 부리세요.” 엄마는 모처럼 분냄새 풍기며 립스틱도 발랐다.

## 조선 백성 구원한 ‘노아의 방주’

성공회 강화성당이 위치한 강화읍 관청리 언덕은 고려중기 몽고군의 침입에 항쟁하기 위해 강화도에 천도하고 내성을 축조한 남쪽 성터의 일부분이다. 이곳은 1896년 강화읍 선교를 책임 맡았던 트롤로프(趙瑪可, M. N. Trollope) 신부가 자리 잡은 임시회당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으로 강화읍내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견자산 언덕마루이다. 강화성당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공회 성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첫 한인사제 김희준 신부와 한인 최초의 수녀 이비비수녀를 배출했다.

도로변 성당초입엔 기종기 소리로 요란하다. 용흥궁과 고려궁지 그리고 강화성당을 벨트로 묶는 소읍도시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좀 어수선했도 공기 참 좋지요?” 박성옥(37) 문화유산해설사는 만나자마자 강화 자랑을 하고 싶은가 보다. 10년째 강화에서 살며 강화를 소개해 온 지도 벌써 5년. 해설 요청이 생기면 일기예보를 살피고 맑은 날을 기도한다.

성당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종교 있으세요?” 묻자 유정이 엄마는 기독교라고 답한다.

“그럼 노아의 방주를 잘 아시겠네요. 성공회 건물도 사람을 구원한다는 의미로 배의 모양을 뒀지요. 팔작지붕 위에 부설지붕을 내달았고 지붕이 두 개여서 언뜻 보면 2층으로 보이나 1층 건물입니다. 지붕의 내림마루와 추녀마루 위에는 용두를 얹었고 용마루 양 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숫을대문에 ‘성공회 강화성당(聖公會 江華聖堂)’이라고 쓰인 팻말이 없었다면 불교 사찰인지 성당인지 혼동이 될 정도네요. 게다가 십자가만 없으면 향교나 관청으로 오인할 수도 있겠어요.” 유정이 엄마는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옥으로 성당을 지을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해설사는 “이 성당은 1900년 트롤로프 주교가 설계, 감독하여 건축한 것인데요. 건물의 배치는 외삼문과 내삼문, 성당, 사제관으로 구성된 한옥건물입니다. 특별히 영국선교사들이 한옥으로 건물을 지은 것은 영국교회지만 한국 토착화를 위한 배려로 봅니다.”

목재는 백두산 원시림을 뗏목으로 강화까지 운반했으며 돌은 강화 돌을 사용했고 서울에서 경복궁을 지었다는 목수와 인천에서 온 중국인 석공 그 외 모든 것은 강화사람들이 담당해 일을 했다. 내부구조는 고주를 세운 중층 18칸, 6칸은 성소, 12칸은 회중석으로 좌우에 복도식 통로가 있으며 바실리카성당과 로마네스크성당의 양식을 원용했다.



## 중세시대 십자가 문양 새겨진 범종

성당 대문 안쪽으로 커다란 종이 자리 잡고 있다. 사찰의 종에는 연꽃이라든가 비파를 연주하는 문양이 있는데 이 성당 종에는 십자가가 있다. 종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 모양의 문양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일반 사각 십자가 모양이 아닌 중세시대 십자가 모양이다. 어찌 보면 큰 원 위에 동서남북으로 동전을 4개 올려놓은 ‘원형창’ 같기도 하다.

“이 종은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쳐요?” 유정의 아이다운 돌발 질문에 모두 웃음이 터졌다. 성당 종은 미사 때와 교인별세 때 그의 나이만큼 타종한다고 성당사무장 이범충(디모데오)씨가 설명한다.

해설사는 종 주변을 돌며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밖에서 종을 치고, 서양종은 안에서 쳐요. 종소리는 위치나 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안에서 치는 서양종은 소리 전달이 밀로만 되기 때문에 높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범종은 음통이 큰 향아리같이 생겨 겉에서 치기 때문에 높이 안 달려도 사방으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땡.땡.땡’이 아니고 ‘때에에엥~ 때에에





엥~' 끊어질 듯 이어지고 끊어질 듯 울려 퍼지는 중후하고 깊은 맛이 있지요."

성당 안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이 곳곳에 숨어 있다. 4개의 문에는 한국식 태극문양과 십자가를 결합한 문양이 그려져 있어 건축물의 의미를 더해 준다.

건물 정면엔 초록문 4개와 기둥 5개가 있는데 목판에 세로줄로 이러한 성구가 적혀있다. 전통가옥 혹은 사찰에서의 주련(柱聯)과는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無始無終先作形聲眞主宰 (처음도 끝도 없으니 형태와 소리를 먼저 지은 분이 진실한 주재자이시다)  
宣仁宣義聿熙拯濟大權衡 (인을 선포하고 의를 선포하니 이에 구원을 밝히시니 큰 저울이 되었다)  
三位一體天主萬有之眞原 (삼위일체 천주는 만물을 주관하시니 참 근본이 되신다)  
神化周流[與]庶物同胞之樂 (하느님의 가르침이 두루 흐르는 것은 만물과 동포의 즐거움이다)  
福音宜播啓衆民永生之方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백성을 깨닫게 하니 영생의 길을 가르치도다)

## 사랑의 종, 자비의 종

일행은 앞뜰 보리수나무 아래로 갔다. 밀동 나무토막에 앉아 떨어진 보리수 열매를 주웠다. 유정이는 단풍잎만한 작은 손안에 거무튀튀한 보리수 열매를 가득 쥐었다. “엄마! 이 보리수로 콩자반하면 좋겠다.” 그러자 엄마는 “애는, 너때문에 엄마 직업 다 들통 난다.”며 입을 막았다.

우리나라 북부지방에서는 희귀종인 보리수는 80년 된 인도산으로 가을철에는 그 열매로 묵주를 만든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7~8년 전 부터는 환경 탓인지, 나무 수령이 오래된 탓인지 꽃과 열매는 맺히는데 익지 않고 바로 떨어져 결실을 많이 보진 못한다고 한다.

그 옆에 있는 회화나무(선비나무) 역시 수형과 잎의 모양이 좋아 옛부터 학자들이 서당이나 서원 등에 즐겨 심었다고 한다. 이곳의 회화 나무는 영국선교사들이 심었으며 품종은 영국 산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월 성당의 종소리는 무형이어서 연탄 한 장과 빗낼 수 없다. 유정이 엄마처럼 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랑, 팔알 만 한 보석을 실에 꿰어 목에 걸던 기선이의 가족사랑, 들녘을 뛰노는 유정이의 해맑은 반달웃음, 문화유산해설사의 사회봉사... 이런 작은 사랑이 모여 큰 울림이 되겠다. 마음을 울리는 사랑의 종, 자비의 종을 이 겨울, 크게 한 번 쳐보자.

개방시간 \_ 오전 10시 ~ 오후 6시

찾아오는 길 \_ 강화대교를 건너 강화읍에 들어선 뒤 군청 앞을 지나 고려 궁지 쪽으로 우회전하면 된다. 이 골목을 따라 50m정도 올라 가면 강화성당을 알리는 푯말이 보이고 김상응손의각비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우회전해 30m쯤 올라가면 강화 성당을 찾을 수 있다.

문의 \_ 성당사무장 이범충(디모데오) 032-934-6171

글 \_ 조은숙 (부평사람들 기자 · eyagi9090@yahoo.c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2004년



1월호  
송헌배수지 제수변실 (시 문화재자료 제23호)  
엄마 이영선 씨 & 딸 김상아  
(인수초 3 / 당시학년)



2월호  
부평향교 (시 유형문화재 제12호)  
엄마 최미숙 씨 & 딸 윤재희 (인주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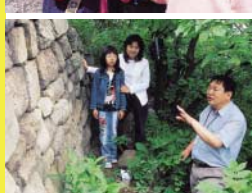
3월호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시 유형문화재 제7호)  
엄마 전경자 씨 & 아들 박윤준 (송도중 2),  
박장준 (연안초 6)



4월호  
능허대지 (시 기념물 제8호)  
엄마 민경미 씨, 아빠 윤지영 씨  
& 아들 윤덕진 (축현초 5)



5월호  
강화 고려궁지 (사적 제133호)  
엄마 이인용 씨 & 딸 이가희 (승학초 5),  
친구 박세은 (승학초 5)



6월호  
계양산성 (시 기념물 제10호)  
엄마 이정라 씨 & 딸 신채연 (부평북초 4)



8월호  
영종도 용궁사 (시 유형문화재 제15호)  
엄마 김영미 씨 & 아들 조웅기 (봉수초 5)



9월호  
강화 광성보 (사적 제227호)  
엄마 안성림 씨 & 딸 한은주 (강화여중2),  
아들 한원준 (선원초 6)



11월호  
원인재 (시 문화재자료 제5호)  
엄마 이화미 씨 & 아들 이도현 (효성초 4),  
친구 김수빈 (효성초 4)



12월호  
답동성당 (사적 제287호)  
엄마 정연미 씨 & 딸 한도희 (청천초 4),  
딸 한도현 (청천초 2)

## 지난 2년간 엄마와 함께 탐방한 문화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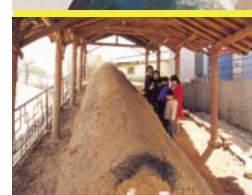
1월호  
인천향교 (시 유형문화재 제11호)  
엄마 이영주 씨 & 아들 박정훈 (만수초 1),  
동네형 최도형 (만수초5)



2월호  
강화 용흥궁 (시 유형문화재 제11호)  
엄마 문미경 씨 & 딸 안혜인 (만월초 6),  
딸 안혜경 (만월초 3)



3월호  
화도진 (시 기념물 제2호)  
엄마 곽화자 씨 & 딸 김지희 (부곡초 2),  
사촌 안유빈 (부곡초 4)



5월호  
녹청자도요지(사적 제211호)  
엄마 유영소 씨 & 아들 연지웅 (박문초 4)  
엄마 김희은 씨 & 아들 문성환 (박문초 4)



6월호  
강화 초지진 (사적 제225호)  
엄마 서두이 씨 & 딸 최소희 (검암초 6)



8월호  
부평도호부청사 (시 유형문화재 제2호)  
엄마 홍유림 씨 & 딸 김계령 (대정초 4),  
딸 김민수 (대정초 1)



9월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사적 제137호)  
엄마 이금주 씨 & 딸 이지은 (성동학교 6)  
친구 고한솔 (성동학교 6), 서정준 (성동학교 6)



10월호  
논현포대지 (시 유형문화재 제6호)  
엄마 조영란 씨 & 딸 김근영 (효성초 6),  
친구 안대현 (신촌초 6)



11월호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시 유형문화재 제18호) 외  
엄마 김영미 씨 & 아들 오정민 (마장초 5)

※ 지난 2년간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을 위해 현장에서 도움을 주신 문화해설사 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05년



# 내 몸이 원하는 춤, 추워야 가라~

옷속으로 파고드는 칼바람이 겨울을 실감케 한다.

이렇게 춥다고 잔뜩 웅크리고 있을텐가? 요즘 ‘음치 클리닉’에 이어 ‘몸치 클리닉’이 인기다.

춤을 추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면 추위도 이길 수 있고 즐겁게 운동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그만이다.

## 관능의 움직임 밸리댄스

사위가 어둠에 싸여있는 시간. 인천 밸리댄스의 원조 (사)터키밸리댄스협회(438-5050)의 하쇼하밸리댄스 연습실에 들어서자 배꼽을 드러낸 짧은 상의를 입은 열댓명의 아가씨들이 열심히 엉덩이를 흔들며 ‘배꼽춤’을 추고 있다. 끈적거리는 듯한 느낌의 음악에 맞춰 찰랑거리는 코인힙스커트를 흔들어대는 수강생들을 바라보는 민경초 원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요즘 들어 밸리댄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실 학원은 물론이고 문화센터나 체육센터 등에도 밸리댄스 열풍이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소연 씨(26세·연수구 동춘동)는 3년전 TV에서 처음 밸리댄스를 보고 반해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7kg이나 체중이 줄어서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한다는 밸리댄스 매니아다. 어릴 때부터 리듬감을 익히게 해주려는 엄마들이 좀 지루한 발레보다는 화려한 동작의 밸리댄스를 배우게 하는 경우도 많아 하쇼하밸리댄스의 경우에는 취학 이전의 아이들로 구성된 강습반도 있다. 우리시 여성의광장(815-7101)이나 계산국민체육센터(556-2146), 송의종합경기장(882-7149) 등 공공기관에도 밸리댄스 과목이 개설돼 있고 백화점문화센터나 개인 학원에서의 강습도 부쩍 늘었다. 민경초 원장은 “3년 사이에 강사로 배출한 사람만 30명이 넘고 학원도 많이 생겨서 인천에서만 1천여명 정도가 밸리댄스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한다.



밸리댄스는 평소에 쓰지 않는 아랫배 근육을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며 운동량도 생각보다 많다. 다른 레포츠텐스와 비교해 뛰거나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소모량이 매우 크다. 특히 밸리댄스 기본동작 중 몸을 떠는 ‘슈미(shimmy)’ 동작은 장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복부 비만과 변비에 효과가 탁월하다. 보기에 예사롭지 않은 동작들이 많아 따라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복잡한 스텝이 없고 그리 격렬하지 않아 몸치 교정 클리닉으로 제격이다. 강습은 보통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진행되고 초급반에서는 전통밸리의 기본 테크닉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체형과 감성에 맞게 변형시킨 퓨전 스타일의 밸리댄스, 중급반에서는 소품을 활용한 정통밸리댄스, 고급반에서는 퍼포먼스 작품 위주의 밸리댄스를 각각 배울 수 있다.



## 둘이어서 더 좋은 댄스스포츠

40대의 평범한 샐러리맨이 우연히 춤을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찾게 된다는 영화 ‘셀 위 댄스’가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영화에서 주인공 남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 춤이 바로 댄스스포츠다.

우리시 여성복지관에도 댄스스포츠 과목이 개설돼 있다. 분기별로 초급과정을 모집하고 일주일에 두 번 강습을 한다. 초급과정을 마친 이들은 동아리 형태로 중급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봉사활동도 함께 한다. 초급과정에서는 댄스스포츠 중 라틴댄스의 자이브를 배우고 중급과정에서는 룸바와 차차차를 연습한다.

여성복지관 댄스스포츠봉사단의 맏언니 격인 김봉자 씨(67세·남구 도화동)는 오랜 교사생활을 접고 명퇴한 후 댄스스포츠를 시작해 인생에서 제2의 활력을 얻은 케이스. 그녀는 “춤을 추면서 다리도 안아프고, 건강해지고, 즐겁고 명랑해졌다.”며 주위에도 댄스스포츠의 좋은 점을 열심히 알리고 다닌다고 자랑이다. 봉사단의 회장을 맡은 최춘자 씨(52·남동구 간석동)는 “50대가 되면서 찾아온 갱년기 증상까지 없어져서 집에서도 좋아한다.”고 전한다.

여성복지관의 강사 유영주 씨는 “댄스스포츠를 사교춤이라고 선입견을 갖기 보다는 운동의 한 종목으로 이해하고 도전하면 좋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소개한다. 댄스스포츠는 사실 학원은 물론 우리시 근로자문화센터(578-5121), 여성복지관(440-6556), 부평국민체육센터(521-3003) 등에 강좌가 개설돼 있고, 계양문화회관(551-6602)에는 라틴댄스, 모던댄스, 댄스스포츠 등으로 나뉜 강좌가 개설돼 있다.

댄스스포츠는 17세기 유럽의 궁중무도회에서 사교를 목적으로 모인 남녀가 서로 원형을 이루고 파트너를 바꾸며 추던 사교댄스(social dance)에서 시작됐다. 동그런 큰방에서 춤을 춘다고 볼룸댄스(ballroom dance)로 불리다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고, 댄스스포츠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게 됐다. 댄스스포츠는 모던댄스와 라틴댄스로 나뉘는데 모던댄스에는 왈츠, 탱고, 퀵스텝, 비엔나왈츠, 폭스트롯 등이 있고 라틴댄스에는 삼바, 자이브, 차차차, 룸바, 파소도블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살사, 메렐레, 폴카, 맘보 등도 댄스스포츠의 일종이다. 댄스스포츠는 운동의 강약 조절이 가능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또 트위스트 등의 동작이 복부운동을 충분히 시켜주기 때문에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좋고 무릎 관절 등에도 활력을 주므로 어르신들이 하기에도 적당하다.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은 크게 궁중무용과 민속무용, 의식무용으로 나뉜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춤추는 사람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이나 인격체에서 우러나는 것을 주목하고 읽어내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완전한 곡선 위에 물 흐르듯 유동적인 동작들이 억제된 움직임, 정중동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스럽고 부드러우며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 몸매를 가꾸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데 좋다. 또한 정신수양도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육체와 정신의 고른 수양에 적당하다.



## 활력이 넘치는 태보

금요일 오후. 자칫 무료해지기 쉬운 시간에 연수구에 위치한 여성의광장 로비에 들어서면 활기 넘치는 소리가 새어 나온다. ‘앗앗’ 하는 그 소리는 마치 무술 도장에서 기합을 넣는 소리와 흡사하다.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태보&다이어트댄스’를 수강하는 스무명 남짓의 아주머니들이다.

태보란 에어로빅스의 한 종목으로 태권도의 발기술과 권투의 손기술, 에어로빅의 발놀림을 접목한 유산소 운동이다. 태권도, 권투 등의 종목을 응용했다고 해서 과격한 격투기를 상상하기 쉽지만 격투를 벌이기보다는 음악에 맞춰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 요즘 젊은 여성들 사

이에서 한창 ‘뜨고’ 있다. 게다가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박자에 맞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일정한 강도의 운동이라 지방을 쉽게 연소시켜 재미있게 살을 뺄 수 있다. 여성의광장에서 태보를 가르치고 있는 안진희 씨는 “태보는 팔과 다리를 쭉 뻗는 동작이 많아 말랑말랑하거나 축 처진 팔뚝과 코끼리 다리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효과 만점”이라고 소개하면서 “실제로 여성의광장에서 태보를 배운 사람 중에는 3개월만에 10kg의 감량 효과를 본 사람도 있다.”고 살짝 귀띔해 준다. 태보는 최근에 붐을 타고 있는 운동이라 공공기관에서는 태보 한가지만으로 개설된 강좌는 거의 없고 일부 체육관이나 헬스클럽 등에서는 다른 운동과 태보를 병행해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태보는 태권도, 에어로빅, 권투가 접목된 유산소운동이다. 특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전신의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몸구석구석 쌓인 불필요한 지방을 없애주며 혈액 순환을 도와 근육 내 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몸의 실루엣이 살아나는 것은 기본이다. 태보의 기본 기술은 상체 기본동작과 하체 기본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체 기본동작에는 잼, 펀치, 훅, 어퍼컷이 있고 하체 기본동작에는 프론트릭, 사이드릭, 백릭, 니킥 등이 있다. 기본동작 외에 응용동작 기술 등이 있어 이 기본동작과 응용동작을 결합 및 응용해 작품을 짜고 연습을 함으로써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 이 밖 에 도 ...

**에어로빅스**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폐와 심장의 기능을 촉진시켜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유산소 운동으로 에어로빅 엑서사이즈의 준말이다. 산소공급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모든 운동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에어로빅댄스를 의미한다. 즐겁게 운동시켜 주는 신체적성운동으로 웃으면서 때로는 소리치고, 뛰고, 달리고, 당기고, 흔들면서 음악에 맞추어 각자의 감정과 기분을 신체운동으로 표현하게 되어 리듬과 함께 피로와 권태를 잊게 한다.

**재즈댄스** 재즈댄스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신체조절 능력 및 운동신경 신장기능을 강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으로 그 기원은 아프리카 춤에 있다. 아메리카에 들어오게 된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그들의 춤과 함께 들어온 것이다. 재즈댄스의 특징은 자유롭게 춤을 춘다는 것이다. 다양한 음악에 맞춰서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시대와 함께 그 시대를 반영하며 창조돼 왔다. 재즈댄스의 종류로는 재즈 발레(Jazz Ballet), 모던 재즈(Modern Jazz), 락 재즈(Rock Jazz), 브로드웨이 뮤지컬 재즈, 라틴 재즈(Latin Jazz), 힙합(Hip Hop) 등이 있다.

**살사** 1950~60년대 뉴욕으로 이주한 쿠바인과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발전시킨 리듬 댄스이며 스페인어로 원래 음식의 양념소스라는 의미처럼 격렬하고 화끈한 것이 특징이다. 살사는 건전하고 율동감이 넘치는 춤이며 남미에서 마을축제나 파티에서 자유롭게 즐기고, 가족끼리 일을 하다 잠시 쉬면서 추었을 만큼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춤이다. 기본 동작은 남녀가 마주 서서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기본 스텝과 손을 엇갈려 잡은 후 복잡한 회전을 섞은 응용동작으로 구성된다.

## 유아한 움직임으로 심신건강 찾는 한국무용

주안4동에 사는 박민옥 씨는 이미 고희를 넘긴 어르신이다. 그녀는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향한다. 시립무용단에서 진행하는 무용교실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에어로빅 등을 열심히 배우다가 차츰 나이가 들면서 벌써 9년째 한국무용을 배우고 있다. “에어로빅 할 때는 무릎이 아팠는데 한국무용은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어서 꾸준히 하고 있다.”며 미소 짓는다.

우리시 시립무용단에서는 지난해부터 무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춤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우리 전통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다. 시립무용단이 운영하는 무용교실의 각 반은 시립무용단의 단원들이 강사로 나선다. 초급과정에서는 전통무용의 기본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손사위, 발사위, 리듬에 맞춰 몸 움직이기 등을 배운다. 중급 과정에서는 소고춤, 태평무 등 작품위주로 배운다.

시립무용단의 김영아 씨는 “무용교실에는 주로 40대에서 60대의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오세요. 한국무용은 리듬에 맞춰 흥겹게 물 흐르듯 움직일 수 있어서 나이 많은 분들은 관절이나 몸에 무리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양 만큼 운동이 되기 때문에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시립무용단(420-2788)은 내년 2월에도 새로 수강생을 모집해 무용교실을 계속할 계획이다. 춤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수강료도 따로 없다.



# 일터에서 부르는 ‘희망 찬가’

그들의 소망은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시민이 되는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없어지는 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누구나 즐겁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깨닫는 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사회는 훈훈해질 것이다.



바다 건너  
빛과 향을  
전하는

장봉혜림원  
젤리향초작업장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세상은 두 배로 밝아지고 공기는 온통 순수의 향으로 채워진다. 연말과 성탄 분위기를 내기에는 초만큼 좋은 소품도 없을 듯하다. 젤리향초는 야구공 크기의 작은 유리병 속에 바닷속 세상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도 ‘아

쿠아 젤리향초’.

잔 내 물씬 풍기는 바다가 토해낸 부산물들이 재료가 된다. 장봉도 해안에서 생성되는 천일염같이 흰 모래들과 조약돌, 조개 껍질, 산호 그리고 해초 등이 일정한 비율로 들어간다. 젤리향초는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미네랄 오일을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투명한 느낌을 더해줄 뿐 아니라 파라핀 양초보다 3~5배 이상 오래 탄다. 초를 켜면 불빛이 젤리에 반사된다. 사방으로 퍼진 빛은 두 배, 세 배로 밝아져 세상을 한층 화려하게 만든다.

제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작품에 가까운 이 초는 지난 2003년 우리시가 주최한 ‘제6회 인천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찬란한’ 경력도 자랑한다.

난초를 가꾸듯 손끝에 정성을 모아 젤리향초를 만드는 이들은 다름 아닌 ‘장봉혜림재활원’ 식구들. 36명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일터는 도심의 여느 작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아침 9시면 출근카드에 도장을 찍고 작업장에 들어선다. 정갈하고 산뜻한 작업환경이 그들 특유의 꼼꼼함과 집중력을 배가시킨다.

수년간 갈고 닦은 기술에 즐거운 마음과 정성을 더해 만드는 제품들이니 어디 흠이 있겠는가. 그들이 바라는 것 역시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대가(對價)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당한 자립이 그들에겐 비장애인의 세상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길이다. 때문에 촛불의 심지가 여기저기에서 타 들어갈수록 그들의 근로 의욕도 활활 타오른다. 작업장에 나오는 게 즐겁다

는 이영용 씨(남28세, 정신지체 장애1급)는 출근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번도 결근을 한 적이 없다. 하루 종일 혼신을 다해 만든 향초는 주문이 적어 한달에 60개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는다. 경기 한파는 눈치도 없이 바다 건너 장봉도까지 불어와 그마저 향초 주문이 줄었다고 한다. 다행히 최근 인천지하철 공사의 도움을 받아 원인재역, 간석오거리역, 인천시청역, 문화예술회관역, 인천터미널 등에 판매용 홍보부스가 마련됐다. ‘아쿠아 젤리향초’의 가격은 8,000원~10,000원. 향초 외에도 다양한 생활 소품과 기념품에 인물이나 풍경사진을 넣어주는 디지털포토 상품이 있다. 추운 겨울, 젤리향초 하나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제품 문의 \_ 751-8051 www.jbhl.or.kr / 제품 구입 시 입금계좌 \_ 농협 216047-51-006158 (예금주 : 보호작업장)



1 장봉혜림원 보호작업장 2 세상을 밝히는 ‘아쿠아 젤리향초’ 3 장봉혜림원 전경 4 장봉혜림원에 마련된 제품 전시실





왼쪽 : 해내기작업장 면장갑 생산라인 오른쪽 : 화장지를 운반중인 해내기작업장 직원



왼쪽 : 품질이 인증된 헨인핸 칫솔 오른쪽 :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음가득’  
행복을 만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해내기작업장

‘해내기작업장’은 ‘무엇이든 해 낼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을 담은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위치한 장애인작업장의 이름이다. 32명의 경증 장애인들이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보람차게 채우고 돌아가는 일터이다. 작업장 이름처럼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다.

주력 생산품은 먼지 안나고 엠보싱처리 돼 부드러운 최고급 화장지 ‘마음가득’. 대 한펄프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돼 품질은 최상이고 가격은 시중 에 판매되고 있는 화장지보다 30%저렴하다. 두루마리화장지 20속 또는 점보롤화장

지 3박스 이상을 주문할 경우 무료배송해주는 혜택도 있다. 품질과 가격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지만 안타깝 게도 판로가 없어 제품판매에 한계를 맞고 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기 업체의 주문생산이 대부분이다보니 그만큼 이윤이 적다고 한다.

함께 생산하고 있는 면장갑은 원료비가 비싸더라도 수입 실이 아닌 국산 실을 사용해 품질을 보장받고 있다. 타사제품이 개당 25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해내기 제품은 150원에 판매된다. 면장갑도 화장지 판매와 같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기계소리는 요란하지만 판매는 기계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안타깝다. 작업장 정현석 원장 은 “제품을 많이 파는 게 최대목표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 일터에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작업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10만원~1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 고 있지만 최저 근로임금 70만원의 50%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 작업장의 목표예요.”라며 소망을 이야기 한다.

‘마음가득’ 화장지 판매가 늘어날수록 근로장애인들도, 우리 가정도, 마음가득 풍요로움을 느끼게 될 때 생산 자와 소비자 사이의 WIN-WIN전략이 성공하는 셈이다.

제품 문의 \_ 883-7074 www.icjb.or.kr / 제품 구입 시 입금계좌 \_ 농협 1330051-55-000507 (예금주 : 해내기 보호작업장)

32개의 치아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간직하고 싶다면 헨인핸 칫솔을 추천한다. 잇몸 이 약한 사람을 위해 칫솔모를 부드럽게 만든 ‘에이플’, 미끄럼 방지를 위해 특수 탄 성고무를 부착한 ‘จู니어’, 칫솔모의 세균을 없애주는 항균칫솔 ‘나노골드’, 잇몸냄 새까지 관리하는 ‘클린32’, 임상실험으로 검증돼 현재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기능 성 칫솔까지 내 이에 꼭 맞는 칫솔을 골라 쓸 수 있도록 ‘(주)헨인핸’이 주치의가 되어 준다.

다른 중소기업과 어깨를 겨루고 있는 헨인핸 제품들은 이미 2000년에 KS품질인증 을 받았다. 또 2003년 공급자에 대한 품질 경영 및 품질 보증의 국제규격을 의미하는 ISO 9001(품질경영규격) 인증을 받았으며 작년에 우리시 품질우수 추천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86년 부평 6동에 처음 보호작업장이 설치되고 가내수공업 형태의 공장으로 출발해 99년 10월에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주)헨인핸’의 모습을 갖추었다. 현재 정신지체 장애인 68명이 공장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하루 48,000개 이상의 칫솔을 만들어낸다. 작업장에는 6대의 최첨단 기계가 도입돼 공단에서나 들을 수 있는 부지런 한 기계소리와 함께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생산과 포장 그리고 철저한 검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진 칫솔은 전국의 일부 관공서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2002년과 2004년에는 치과용 칫솔이 일본에 수출되기도 했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큼 그 품질에서 공인된 상품이다. 박상현 사무국장은 ‘헨인핸’과 직거래를 할 경우 5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귀띔한다.

제품 문의 \_ 521-7471 www.myhandinhand.com / 제품 구입 시 입금계좌 \_ 농협 216047-51-006158 (예금주 : 보호작업장)

글 \_ 김미희 (편집위원 · meehee75@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 장 애 인 생 산 품 판 매 처 - 인 천 곰 두 리 공 판 장

## 쌈박하게~ 훈훈하게~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가 운영을 맡고 있는 비영리 면세법인 ‘곰 두리공판장’이다. 남동구 구월동에 자리하고 있는 공판장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생산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우리시 장애인 시 설에서 만든 상품에는 칫솔, 향초, 면장갑, 화장지 등이 판매되고 있다. 그 밖에도 구두, 화장지, 고무장갑, 종이공예품, 액세서리 등 다른 지역의 장애인 작업시설에서 만든 제품들도 함께 판매된다.

문의 \_ 423-0184 www.icgomdoori.or.kr

### | 우리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작 업 장	생 산 품	소 재 지	연 락 처
애호일터 (정신지체인 애호협회)	건축자재물 조립, 포장	남구 송의1동	863-9255
모퉁이 보호작업장 (모퉁이 복지재단)	문구 조립	남구 주안3동	861-0105
열린일터 ((재)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비즈공예, 자판기 관리, 문구류 생산	남동구 만수6동	468-7788
굿프랜드 (성촌의 집)	문구, 화장품, 전자조립	부평구 십정2동	428-1741
성동 (사회복지법인 성동원)	포장, 문구 조립	부평구 부평2동	506-7747
노들담 (노들담 수녀회)	자수, 편물, 전자제품조립, 포장	계양구 계산2동 40	542-3711
예진원 ((사)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	전자제품가공, 조립	서구 심곡동	568-3270
우리마을 ((사)대한성공회 서울 교구사회복지재단)	콩나물수경재배, 상추재배,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937-8691
길벗회 보호작업장 (사단법인 길벗회)	문구 조립	남구 송의3동	886-6683



## 유리상자 콘서트 21th 사랑담기



‘신부에게’, ‘사랑해도 될까요’, ‘순애보’ 등 제목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유리상자의 주옥같은 히트곡들과 평소 즐겨 부르는 애창곡 그리고 콘서트만을 위해 특별히 선정된 노래를 인천무대에서 다양하게 들려준다.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밤에 열리는 이번 공연은 사랑하는 연인,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일시** \_ 12월 31일(토) 오후 6시 30분 · 오후 10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문의** \_ 하늘기획 (322-2121)

## 2005 이웃사랑 송년음악회



학익사회복지센터와 남구 학산문화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곳곳하게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 및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과 지역주민을 위해 Hi Lady Singers 여성합창단, 대학생 아마추어 댄스동아리 Stomp, 그리고 월드비전 어린이합창단 등을 초청해 송년음악회를 펼친다.

**일시** \_ 12월 15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_ 학익감리교회  
**티켓** \_ 무료  
**문의** \_ 866-3993

### 인천메세나협의회 창립을 위한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만남’

오늘날 기업과 문화예술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 협찬이 아닌 새로운 파트너십의 관계이다. 메세나 활동은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다. 인천메세나협의회 창립을 위해 지역 내 기업인, 문화예술인 그리고 관계자들이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일시** \_ 12월 5일(월) 오후 6시  
**장소** \_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  
**문의** \_ 인천의제 21(440-1544)

##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이 작품은 2001년 초연을 시작으로 4년간 서울 및 지방공연 800회 이상, 3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하며 아동극의 한계를 뛰어 넘어 어른 관객 점유율을 90%까지 끌어올린 수작이다. 난장이의 시점에서 짝사랑의 아픔과 순수한 마음을 잔잔하고 감동스럽게 표현한 아름다운 연극이다.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요즘의 각박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말없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일시** \_ 12월 17일(토)~18일(일) 오후 3시 ·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1층) 30,000원 / S석(2층) 20,000원  
**문의** \_ 하늘기획 (322-2121)



## 론 브랜튼과 클레가 꾸미는 재즈 크리스마스



서정적이고 섬세한 피아니스트 론 브랜튼과 빼어난 기교, 따스한 음색의 엘토 색소폰 연주자 클레가 징글벨, 북치는 작은 소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우리에게 친숙한 크리스마스 노래를 재즈선율에 담아 온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재즈 콘서트이다.

**일시** \_ 12월 22일(목) 오후 7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대공연장)  
**티켓** \_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홈페이지 www.iecs.go.kr 인터넷 예매)  
**문의** \_ 760-3466~7

## 뮤지컬 그리스(Grease)

2003년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리스는 올해 다시 장기공연에 돌입하며 또 한번의 흥행돌풍을 일으켰다. 그리스가 현재까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는 이유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귀에 익숙한 음악, 무거운 주제가 아닌 내용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 과거를 경쾌한 Rock & Roll 리듬에 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시** \_ 12월 24일(토) 오후 4시 · 8시 / 25일(일) 오후 3시 · 7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일반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학생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문의** \_ 하늘기획 (322-2121)



## 인천문화재단 출범 1주년 특별기획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호두까기 인형〉은 100여년 전 초연된 후,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음악과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동화적인 요소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고정 레퍼토리로 자리잡아왔다.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 ‘단골 발레’의 고전인 이 작품은 피콜로로 표현되는 앙증맞은 중곡춤, 현악기와 관악기가 떠들썩하게 함께 하는 러시아안춤과 세계각국의 민속춤 등 각 나라의 특징이 춤으로 절묘하게 표현돼 관객들의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일시** \_ 12월 3일(토) 오후 7시 30분, 4일(일) 오후 3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할인혜택 : 4인 가족 패키지 R석 30%할인, S·A석 20%할인, 장애우 할인 40%  
**문의** \_ (재)인천문화재단 433-1710 (교 215)

## 우투리 이리와 무두

‘한국연희전통의 현대적 양식화’를 목표로 하는 공연예술집단 〈우투리〉가 공연하는 이 작품은 ‘예술가의 삶을 택하는 강아지 이야기’라는 알레고리적 스토리를 가지고 현대사회에서 점점 그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예술과 문화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도모한다. 문화관광부와 서울아트마켓이 선정한 해외 진출 우수공연작품이다.

**일시** \_ 12월 7일(수)~23일(금)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 6시,  
           일 · 공휴일 오후 4시 1회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_ 학산소극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8,000원 / 어린이 7,000원  
**문의** \_ 866-3993



## 김경배 사진전 날개 달린 아이들

현재 인천관교초등학교에 근무(2006년 2월 정년퇴임 예정)하는 작가가 37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며 교육현장에서 맞닥뜨린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렌즈를 통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다큐 형식의 기록이다. 바로 우리들의 어릴적 이야기이기도 한 작품들에는 작가 특유의 사랑 냄새가 짙게 깔려있다.

**전시기간** \_ 12월 17일(토)~22일(목)  
**전시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12월 2일 ~ 8일〉  
**제41회 인천미술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전관 867-2196, 465-7500

〈12월 9일 ~ 15일〉  
**제6회 인천광역시 미술전람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 · 중앙 · 소전시실  
 561-4190, 011-755-2385  
**제8회 야외 스케치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867-2196, 465-7500

〈12월 16일 ~ 22일〉  
**2006 움스큐라 사진영상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890-7270, 016-260-4581  
**테마기획 사진전 날개달린 아이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421-5300, 016-9373-5301  
**개인전 ‘은유적 경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439-2109, 011-9950-2109  
**제12회 인천파스텔화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467-5777, 019-212-3601

〈12월 23일 ~ 29일〉  
**의식의 확장**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438-8131, 016-618-5224  
**이재민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962-8296, 010-9906-2016  
**박종식 도예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031-988-2708, 011-732-2708  
**인천서각예술대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011-9121-7774





## 시립예술단 송년무대

### 인천시립무용단 56회 정기공연

#### 미륵(彌勒)의 꽃



한국 창작무용의 새 지평을 연 시립무용단은 56회 정기공연으로 '미륵(彌勒)의 꽃'을 무대에 올린다. 불교의 메시아인 미륵, 이 미륵을 기다리며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의 희망과 구원을 간구하는 몸짓을 표현하는 이 작품은 전쟁과 테러 같은 어두운 사회 앞에서 희망이라는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일시** \_ 12월 9일(금) 오후 7시 30분, 10일(토) 오후 5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5,000원 (단체할인 40%)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

### 인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Happy Christmas

천상의 하모니 인천시립합창단이 성가곡, 캐롤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무대를 마련한다.

**일시** \_ 12월 13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합창단 (420-2784)



###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시립교향악단은 연말 정기연주회로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공연한다.

**일시** \_ 12월 30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교향악단 (420-2781)



### 인천시립극단 41회 정기공연

#### 레티스의 이상한 술



'레티스의 이상한 술'(원제 Lettice and Lovage)은 인간관계에 대한 연극적 해석을 다룬 작품이다. 연극적인 소질과 열정을 가진 관광안내원 '레티스'와 그녀를 고용한 문화재관리청의 냉정하고 이치적인 여직원 '롯데'의 관계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상이한 성격의 두 사람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립하거나 갈등으로 인한 파국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이며 화해이자 조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시** \_ 12월 9일(금)~18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토·일 오후 4시(월요일 공연없음)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극단 (438-7775)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	6 우투리 (이리와 무투) 학산소극장 오후 7시 30분 (월요일 공연 없음) 1만원, 8천원, 7천원 866-3993	14 내리김리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제23회 메시아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762-7771 시립극단 정기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438-7775	1 인천새소풍양심불 제7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7천원, 5천원 017-327-2401	2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미륵의 꽃)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420-2788 북합무지젤 (놀부가 기가 막혀) 서구문화회관 오후 10시 20분 · 11시 20분, 오후 4시 오후 5시 / 1만원, 5천원 / 420-2788 시립극단 정기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술) 오전 11시, 8천 / 572-428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438-7775	3 인천문화재단 1주년 특별기획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3만원, 2만원, 1만원 433-1710(215) 이선비 명인의 춤 세계 〈심원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4시 / 1만원 017-244-8147	4 인천문화재단 1주년 특별기획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 3만원, 2만원, 1만원 433-1710(215) 제2회 김금표정기발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3시 / 초대 427-6023
12	13 시립극단 정기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438-7775 시립합창단 제98회 정기연주회 (Happy Christmas)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1만원, 7천원, 5천원 / 420-2784	12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열린 송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772-0099 시립무용단 무용교실 수료발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 420-2788	15 시립극단 정기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438-7775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438-7775	9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미륵의 꽃)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420-2788 북합무지젤 (놀부가 기가 막혀) 서구문화회관 오후 10시 20분 · 11시 20분, 오후 4시 오후 5시 / 1만원, 5천원 / 420-2788 시립극단 정기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술) 오전 11시, 8천 / 572-428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438-7775	10 우투리 (이리와 무투) 학산소극장 / 오후 3시 · 6시 1만원, 8천원, 7천원 / 866-3993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미륵의 꽃)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5시 / 1만원, 5천원 / 420-2788 북합무지젤 (놀부가 기가 막혀) 서구문화회관 / 오후 10시 20분, 오후 4시 시 · 4시 / 1만2천, 8천 / 572-4281 시립극단 정기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4시 / 1만원, 5천원 / 438-7775	11 우투리 (이리와 무투) 학산소극장 / 오후 4시 1만원, 8천원, 7천원 866-3993 〈레티스의 이상한 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4시 / 1만원, 5천원 438-7775
19	20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열린 송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772-0099 시립무용단 무용교실 수료발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 420-2788	21 인천청소년교향악단 〈대한민국청소년관현악축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3시 · 7시 1만, 7천, 5천 / 438-6040 건설근로자 가요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무료 011-704-7721	22 문 브랜튼과 클레가 꾸미는 〈제2 크리스마스〉 인천화성교문문화관 씨리재출 오후 7시 / 2만, 1만5천, 1만 760-3466~7 관교콜라비넷양성불 제2회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 5천 / 018-285-8836	23 문 브랜튼과 클레가 꾸미는 〈제2 크리스마스〉 인천화성교문문화관 씨리재출 오후 7시 / 2만, 1만5천, 1만 760-3466~7 관교콜라비넷양성불 제2회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 5천 / 018-285-8836	24 무지젤 그리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4시 · 8시 R 5만원, S 4만원 / 322-2121 정자는속의 공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4시 1만원, 8천원 프랜즈엔터테인먼트 / 505-7232	25 무지젤 그리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3시 · 7시 R 5만원, S 4만원 / 322-2121 정자는속의 공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 4시 1만원, 8천원 프랜즈엔터테인먼트 / 505-7232
26	27 인천중부김리교회 (제1회 메시아 대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 1만원 011-322-7189, 763-2801 인천부부합창단 기념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873-2445	28 2005 IVF그라시아합창단 성탄절 카타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무료 422-0923	30 시립교향악단 제266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420-2781	31 시립교향악단 제266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420-2781	31 유리상자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6시 30분 · 10시 5만5천원, 4만5천원 322-2121	1.1 유리상자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오후 6시 30분 · 10시 5만5천원, 4만5천원 322-2121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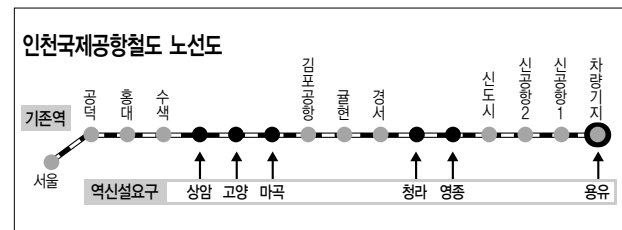
# 굿인천 굿뉴스

## 부평-상동 버스노선 신설

인천 부평구, 계양구와 부천 중동, 상동을 잇는 직선버스 2개 노선이 이달 중에 신설된다. 우리시와 부천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에 따라 34번 버스는 현대백화점 부천점~부천 영상단지~삼산농산물센터~부평역~인천시청~인천상공회의소~인천 연수구 동춘동을 운행하기로 했다. 한편 부천버스 87번은 계양구 임학사거리에서 부천시청~송내역을 오가고 부천 구간만 운행하던 소신여객 23-2번은 부천시청~부평구청~인천지하철 1호선 갈산역을 지난다. 이에 따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버스노선이 없어 환승을 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895

## 용유·영종·청라 역사(驛舍) 추가



인천국제공항철도에 용유·영종·청라역 등 3개 역사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중앙투·용자 심사에서 중구~서구 사이에 3개 역사 추가 신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인천을 지나는 공항철도의 정거장은 굴현~경서~청라~영종~신도시~신공항2~신공항1~용유역 등 8개 역으로 늘어난다. 역사 추가 건설에 드는 비용은 870억원선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기본설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9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3개 역사가 신설되면 영종·청라지구 경제구역 개발과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의 \_ 시 교통기획과 440-3874

## 어르신들 힘내세요



우리시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63개 분야에 9천 58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배정 인력을 현재 1천112명에서 1천338명으로 늘리고 사업기간도 9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참여 연령도 60세 이상에서 65세~74세로 조정한다. 또 군·구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하고 노인인력뱅크를 구축해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건강한 노인이 질병 노인을 간병해 주는 '노인 간병 도우미제'를 시행해 60세~65세 퇴직공무원 등 50명을 선발해 영세 보육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가정청소년과 440-3954

## 인천대공원에서 미래 환경을 꿈꾼다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에 환경미래관이 들어선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10평 규모로 지하층에는 어린이 환경재활용센터가 들어서며 1층은 우리시의 자연환경과 환경도시로서의 미래상을 모형과 사진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또 2층에는 지구환경과 도시문제, 미래 환경을 다룬 전시실이 설치되며 야외에는 300여 평의 야외체험학습장도 조성된다. 눈으로 보는 전시만이 아닌 관람자와 전시공간이 상호작용하는 친환경적 감성체험 전시관을 조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45억원의 예산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환경보전과 440-3514

##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 개최



내년 7월27일부터 30일까지 송도 대우자동차 부지에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가하는 '2006 송도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Triport rock festival)'이 열린다. 이 행사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7~8개 팀과 국내 15~17개 팀이 참가해 록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행사장은 록 페스티벌 메인무대를 비롯해 인디밴드 공연장, 테크노·힙합 등이 펼쳐지는 테마파티장, 인터넷센터, 게임존, 인천시홍보관, 한류 문화체험관, 디지털콘텐츠존 등으로 꾸며진다. 우리시는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으며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초에 민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4016

## 해양경찰, 송도시대 맞는다

지난달 말 인천해양경찰청이 중구 북성동에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내 새청사로 이전했다. 신청사는 총320억원을 들여 연면적 8천300평, 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난 2002년 11월 착공해 3년 만에 완공됐다. 유비쿼터스 등 최첨단 정보화시설로 갖췄으며 상황실에는 한반도 해양 운항선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첨단

정보스크린이 설치됐다. 아울러 해양경찰의 발자취와 비전을 전시하고 각종 해양시설을 갖춘 홍보관도 80평 규모로 들어섰다.

문의 \_ 인천해양경찰청 884-5506

## 봉수대길 개통



서구 가좌동과 검단 우회도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길이 9.4km의 봉수대길이 공사 7년만에 이달 중 완전 개통된다. 지난 98년 12월 9천19억원을 들여 착공한 서구 가좌동 경서동을 잇는 길이 6.6km 왕복 8차로 도로이며 경서동과 검단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2.8km 구간은 지난 8월 우선 개통됐다. 봉수대길 완전 개통으로 서곶로와 경명로 일대의 만성적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화·김포 방면을 오가는 차량의 물류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가좌동에서 경서동을 통해 김포시로 진입할 경우 통행시간도 평균 20~3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3

## 계양·남동구 8곳 그린벨트 해제

지난 9월 20가구 이상 모여 사는 집단취락지구 32곳(43

## 인천항만공사 남포항교류 협의

인천항만공사 남포항시찰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인천항만공사 방문단은 지난달 5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남포항 등 항만시설을 시찰하고 인천항과의 협력 방안과 현재 주 1회 운항하고 있는 인천-남포간 컨테이너 항로의 확대와 인적교류가 가능한 카페리선의 신규 취항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갑문식 항만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인천항과 남포항의 항만운영과 갑문 관리기술 등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파견 등 상호 기술협력 방안과 함께 인천-남포항간 우호항 자매결연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북은 남북 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리적으로 최단 거리에 위치한 인천-남포항 간의 해운, 항만 분야의 협력과 인적,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평안남도 대동강 하구에 위치한 남포항은 10월 10일 2척의 선박이 접안 가능한 컨테이너부두를 새롭게 완공하는 등 개성, 평양과 인접한 북한내 중추적인 무역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제공 \_ 노컷뉴스 (www.cbs.co.kr)



만여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데 이어 계양·남동구 지역 8곳(26만1천296평)이 추가로 해제된다. 대상 지역은 계양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계양구 선주지동 113의 1일대 3만6천여평, 제2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남동구 수산동 140의4일대 3만4천여평 등이다.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150%, 건폐율 60%이내에서 4층(1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우리시는 해당지역에 도로개설, 주차장, 어린이 공원, 완충 녹지대, 근린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_ 시 주택건축과 440-3826

## 교통카드사용, 200원 할인



교통카드로 택시를 이용할 때 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시는 택시의 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달 16일부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택시 이용객에 대해 기존 100원 할인에서 200원씩 할인하는 내용으로 법인 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로 기본요금 구간을 이용할 때에도 200원을 할인받게 되며 택시 운전기사는 100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택시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이-베스트 카드, 에이캐쉬, 서울시 버스조합, 한국스마트티머니와 후불신용카드인 국민, 삼성, 외환, 신한, 한미, LG, BC 등 12종류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917

## | 인천시교육청 소식 |

### 강화·옹진 학교 통폐합

강화군과 옹진군 내 학교 가운데 학생수가 적은 학교 36곳이 통폐합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와 20명 이하의 분교, 중학교는 100명 이하의 학교와 분교, 고등학교는 100명 이하의 학교가 해당된다.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5곳 등이다. 이전의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인근학교로 편입되며 통학비, 하숙비 등을 지원받거나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

### 해양과학관·홍보관 생긴다

인천항 갑문과 월미도 사이에 조성한 8천500평 부지에 인천해양과학관과 홍보관이 건립된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 2007년 착공할 해양과학관 부지는 인천항만공사가 제공하며 사업비 1천억 원은 민자 유치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또 항만공사는 80억 원을 들여 과학관 인근에 연면적 700평 규모의 인천항 홍보관을 신축하기로 했다. 과학관은 2009년까지 월미관 광특구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형 투자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문의 \_ 시 항만지원과 440-3383

### 문학산 ‘역사공원’ 꾸민다



인천의 발상지인 문학산을 역사공원화하기 위해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우리시는 문학산 역사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안에 따르면 문학산 지역의 유적 복원 사업, 조형물, 역사관 설치, 자연생태공원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문학산을 역사공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또 문학산 고인돌 공원조성,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김민선 인천부사의 사당인 안관당 복원, 조선 후기 인재를 양성한 학산서원 복원 등이 제시됐다.

문의 \_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439-0493

### 내년도 중등교원 496명 선발

교육청은 보건, 특수, 사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포함해 2006학년도에 올해보다 173명이 늘어난 총 496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중등교사 474명, 국립사대 졸업 교원 임용자 22명 등이다. 교과별 모집 인원은 국어 56명, 영어 76명, 수학 62명, 공통과학 31명, 공통사회 34명, 역사 31명, 체육 37명, 중국어 1명, 디자인·공예 5명, 전기·전자·통신 3명, 건설 1명, 도덕·윤리 27명, 한문 11명, 기술 8명, 가정 8명, 조리 2명, 미용 2명, 특수 38명, 특수(직업학교) 6명, 보건 19명, 전문 상담순회 6명 등이다. 1차 시험과 논술·면접시험 등의 전형을 마치고 내년 1월 27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_ 인천시교육청 423-3303

## 의 정 소 식

###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 강화연륙교 건설예정지 시찰

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추연여, 이하 ‘남북특위’)는 10월 26일 강화 철산리와 개성공단과의 연륙교 건설예정지를 시찰했다. 위원들은 연륙교 건설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등을 브리핑 받고,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길이 열리고 이를 계기로 남북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연륙교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북특위 전문가 최정철 박사의 ‘남북교류촉진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신도~강화~개풍군~개성을 잇는 왕복 6차선, 총연장 52.8㎞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30~40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인천공항을 이용한 수출품 운송과 해외 바 이어 왕래 등 물류·인적 교류로 남북 양측의 윈윈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동북아 물류 및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인천·서울·개성의 삼각축 연계발전과 공항·항만을 가진 인천과 수도권 배후생산기지인 개성 간 직결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인천국제공항~개풍군 고도리 41.6㎞의 4차로로 건설할 경우 8천 812억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강화 철산리와 개풍군 고도리의 연륙교는 1.8㎞로 서 1천88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남북특위 위원들은 인천시의 현장 브리핑을 통하여 강화~개성간의 연륙교 건설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 남북 합의를 통하여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강화~개성간의 연륙교 건설은 지난 5월 30일 인천시 방북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과 구두 약속한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 남북합의를 통해 연륙교가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관련 토론회 개최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고진섭)는 찬·반 양론이 고조되고 있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관한 시민토론회를 11월 11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수돗물불소화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되면서 뜨거운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열린 공방이 이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진범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는 “수돗물 불소화의 충치예방효과는 분명하며 전 세계 58개국을 비롯해 미국에서만 50개 대도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충치예방효과와 경제성,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대에 나선 김중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불소는 원래 쥐약과 살충제의 주원료로 사용된 맹독성 물질이며 아무리 미량이라고 하지만 개개인의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되는 화학물질을 수돗물에 첨가해 원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에게 음용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안병배 인천광역시의원 “불소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권 문제는 이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익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소수 반대자에 의한 사업 중단은 오히려 다수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범성 의원 선임

인천광역시의회(의장·박승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위원회를 개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범성 의원을, 제1간사에 강석봉 의원을, 제2간사에 이강호 의원을 선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0일 제141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해 박창규, 최영광, 이강호, 안병배, 박용렬, 신경철, 이범성, 황창배, 임희정, 강석봉, 강창규 의원을 예결위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006년 6월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_ 인천시의회 공보팀 440-6054





## 중구 ‘청소년 문화의 거리’ 새단장

지난달 9일 동인천 일대 ‘청소년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2년간의 공사끝에 완공됐다. 내동과 전동, 인현동 일대 등 총연장 1천579m에 이르는 거리에 지중화 공사와 함께 폭 5~10m에 이르는 보도와 차도 정비, 가로시설물 등이 재정비됐다. 이곳에서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매달 주1~2회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_ 중구청 760-7114

## 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문열어

치매노인들의 전문적인 치료와 각종 건강관리서비스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지난 10월 25일 송림동에 개소했다. 지상 3층 건물에 연면적 130평 규모로 세워졌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학간호복지재단 인천간호사회에서 위탁 운영을 맡았다.

문의 \_ 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 765-8291

## 남구 집창촌 재개발사업 추진

대표적인 집창촌인 송의동 ‘특정지역’ 일대에 대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남구는 이 지역 일대 9,400여 평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환경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해 시에 건의한 상태이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주민동의에 따라 주상복합단지로 추진될 전망이다.

문의 \_ 남구청 887-1011

## 연수구 예산군과 자매결연

연수구는 지난달 11일 충남 예산군청 회의실에서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과 자치단체간 우호 협력증진을 위해 충남 예산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농촌지역과 관광지가 함께 어우러진 예산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농산물직거래 및 관광활성화 등 교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_ 연수구청 817-1011

## 남동구 간석동에 복지관 개관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1월 4일 문을 열었다. 총 30여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규모로 어린이도서관과 주민휴게실, 집단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학교법인 성산학원에서 직영하게 될 성산종합복지관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의 \_ 인천 성산종합사회복지관 437-2500

## 부평구 십정시장 새 단장

십정종합시장이 공사 8개월여 만에 현대화 사업을 마쳤다. 지난 1981년 개설돼 대지 671평에 74개 점포가 입주해 있는 십정시장은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아케이드 시설과 바닥포장, 전기·소방 시설 등의 공사를 마쳤다.

문의 \_ 부평구청 509-6550

## 계양구 계산시장 대대적 환경개선

계양구의 관내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계산시장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계양구는 사업비 36억여 원을 들여 길이 390m에 높이 6m 규모의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포장과 집수관 정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공사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 시장 내 120개 상가 간판도 동일한 규격으로 새로 제작할 계획이다.

문의 \_ 계양구청 420-5114

## 서구 눈썰매장 개장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이달 10일부터 내년 3월초까지 ‘서구 눈썰매장’을 개장한다. 폭35m, 길이 125m의 긴 슬로프를 비롯해 눈광장, 눈썰매장, 스넥하우스, 휴게실과 209면의 무료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이용요금은 어른 7천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4천원이다.

문의 \_ 서구시설관리공단 565-3483



## 강화군 역사박물관 내년 착공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시공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내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4월 착공해 2008년 준공할 예정이다. 역사박물관은 하점면 부근리 일원에 총면적 1만5천 449㎡, 연면적 2천785㎡ 규모로 전시실, 영상관, 소강당 등을 갖춘 예정이다.

문의 \_ 강화군청 930-3114

## 옹진군 조류독감 어렵없다

옹진군은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섬 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질병감시요원 및 수의사 4명을 투입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문의 \_ 옹진군청 880-2114

## 송도국제학교, 美 명문 사립과 제휴



미국계 비영리법인인 인터내셔널 스쿨서비스(ISS·International School Services)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국제학교의 운영을 맡기로 했다. 1955년 설립된 ISS는 현재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중국 등 전 세계 100여개의 국제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송도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NSC사는 ISS와 양해각서를 맺고 빠르면 12월 학교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고교인 밀튼아카데미도 송도국제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육프로그램개발, 학생·교직원교류, 교사연수 등을 협력하기 위해 약해각서를 체결했다. NSC사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로 구성된 학생 2,100명 규모의 국제학교를 2008년 9월 개교설립을 목표로 유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송도에 64층 ‘유엔센터 빌딩’ 건립

송도국제도시에 유엔(UN) 등 각종 국제기구들이 입주하는 64층짜리 ‘유엔센터 빌딩(가칭)’이 세워진다.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등이 입주하는 빌딩을 짓기로 하고 건립 타당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빌딩은 1~14층에 쇼핑·생활편의시설, 15~34층에 입주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오피스텔, 35~54층에 ESCAP 등 국제기구들의 사무실, 55~64층은 고급 호텔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유엔센터 빌딩에 대한 연구용역이 내년 초에 끝나면 내년 말까지 건립계획을 마련, 2007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송도 신도시 내 후보지로는 송도테크노파크 전면 광장과 5·7공구 내 주상복합예정지, NSC건물 임차사용, 기타 최적 건립지 우선 협상대상자 등이 검토되고 있다.

## 美 랭킹 7위 NYP병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국제병원 운영 주체로 미국의 10대 병원 중 하나인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ew York Presbyterian) 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재정경제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복지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난달 3일 이 같은 결정을 최종 발표했다. NYP 병원은 사업제안서를 통해 6억 달러를 들여 오는 2008년 말 개원을 목표로 600병상 규모의 종합 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전체 의료진의 10% 이상이 NYP와 코넬의대측의 교수급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NYP병원은 지난 1998년 뉴욕병원과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이 합병해 탄생한 병원으로 미국 콜롬비아 의대와 코넬 의대의 공식 제휴병원이며 올해 미국내 병원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다.

## 청라 첨단자동차기지 건설 시동

경제청은 지난달 3일 ‘청라 첨단자동차부품 산업단지 조성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갖고 청라지역에 자동차부품단지 조성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내년 1월 말까지 기존 산업단지 및 인천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 현황조사 등 산업단지 분석과 법률 검토를 거쳐 청라지구 개발계획에 적합한 입주 업종,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단지 조성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첨단자동차부품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GM대우 연구소, 공항, 항만이 인접한 청라지구에 연구와 생산, 물류, 수출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첨단자동차 특성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 ‘폭주기관차’ 정상에 오르다

인천을 연고로 하는 한국철도축구단이 마침내 K2리그 챔피언에 올랐다. 인천 한국철도는 지난달 13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벌어진 실업축구 2005 K2리그 챔피언결정전 수원시청과의 원정 2차전에서 2-1로 승리, 2승으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K2리그는 국내 실업축구단 11개팀이 지역연고를 두고 시즌 경기를 벌인다.

K2리그에서 첫 정상에 등극한 한국철도는 국내 프로팀들과 겨루는 FA컵에서도 우승컵을 안으며 우리나라 축구팀의 진정한 지존으로 우뚝 서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다. 한국철도는 3번째 FA컵 8강에 진출한 바 있다.



## 모두들 잘 가시게 ~



공항은 만남과 이별의 장소이다.

국제공항에서의 헤어짐은 다시 만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슬프다.

어린 자식을 홀로 유학 보내는 것이 안타까운 것일까.

미국에 사는 큰 딸네를 찾아가는 노모의 낯선 여행길이 걱정된 것일까.

출국장으로 들어간 그들의 그림자라도 한번 더 보기 위한 가족의 시선이 애처롭다.

12월은 ... 사람과 이별하고 ... 시간과 이별하는 ... 그래서 슬픈 달이다.

잘 가시게, 2005 을유년...

글 · 사진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 담장 없어진 시청, 문턱 낮아졌네

우리시가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담장 없애기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2003년 9개 장소의 담을 허물고 4천600그루의 나무를 심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27개 건물의 담장이 사라졌고 올해는 단독주택 20개소를 비롯해 80개 건물의 담장에 4만2천여그루의 나무가 착착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 담장 무너진 자리에 아담한 벤치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시청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확충해 개방형 열린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시청을 만드는 공사에 들어갔다. 이웃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심의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우리시에서 담장없애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시청은 굳건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시청담장허물기 사업’이라는 프로젝트에 착수한 우리시는 정문 155m 등 교육청 담장을 포함해 약 170m의 담장을 철거했다. 담장의 역할은 나무가 대신하고 담장이 없어진 자리는 간이 벤취 등이 생겨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로 변신했다.

담장을 없애는 것과 함께 시청 앞 도로변도 새 단장을 했다. 시청 주변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생겨 녹지 공간이 훨씬 많아진 것. 담장을 없앤 자리를 비롯해 시청 주변에는 느티나무 등 4천855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화강석 디딤석놓기, 칼라아스콘포장, 화강석경계석, 녹지경계석, 자연석 쌓기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

## 주차장 유료 운영, 민원인 1시간 무료

담장을 없애는 공사와 함께 시청 광장을 재정비하는 사업에도 착수했다. 시청 광장은 아스콘 포장을 한 이후 10여년이 경과돼 마모와 파손된 곳이 많았다. 아스팔트가 노후돼 노면이 마모되고 균열이 발생했고 주차구획선이 흐려지고 균열돼 차선 구분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많아지다보니 주차장이 부족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았다. 우리시는 시청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주차장의 포장공사에 들어갔고 아울러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사업을 맡겨 관제시스템 설치공사도 함께 병행했다. 주차장 포장공사를 마치고 12월 한달간은 관제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본격적인 주차장 유료화는 내년 1월~2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주차요금은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받는다. 토요일과 휴무일에는 휴장하며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주차장은 민원을 위해 시청을 찾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차 요금은 입차 후 1시간 이후부터는 최초 30분 동안 600원에 매 10분 초과시마다 300원씩 추가된다. 5시간 이상 유료 주차할 때는 전일 주차로 간주해 6,900원으로 하고 월 정기주차권은 6만원으로 정했다. 단, 시청에 상시 출입하는 직원 및 시 본청 입주기관 근무자는 50%를 할인해 주고, 차량 5부제 운행에 참여할 경우 추가로 10%를 할인해준다. 또한 각종법률에 의해 주차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장애인 차량과 긴급 차량, 공무 차량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청의 담장없애기는 시청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열린 시청,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크게 한 몫하고 있다. 또한 시청 담장을 먼저 허물고 민간 담장으로 확산해 이웃간에 마음의 벽을 허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심에 녹지를 늘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 참여하는 순간 '소통' 한다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INCHEON@NEWS'는

단순하지만 알찬, 작으면서도 쓸모있는 '정보의 바구니'와 다름없다.

지난 5월 9일 창간 1호를 세상에 내놓은 후 이제 60호를 헤아리고 있다.

주 2회 발행(화, 목)을 원칙으로 현재 구독회원이 4만4천여명에 이른다.

출범 7개월여만의 현주소다.



우리시 정보화담당관실 주관으로 제작되는 인터넷신문(eneews.incheon.go.kr)은 '시민참여형 쌍방향 소통'을 편집원칙으로 한다. 600여명의 시민기자들과 12명으로 구성된 시민편집위원회가 이 원칙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한다.

한길자 시 정보화담당관은 "단순하고 일방적인 행정기관 홍보나 치적을 내세우는 관 주도형 홍보매체의 한계를 벗고 실질적인 인천시민의 정보매체로 자리매김하려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독자의 꾸준한 증가와 시민기자들의 참여는 이런 편집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시정 비판기사를 여과없이 실는가 하면, 시민단체의 의견이나 지역 민원도 가감없이 게재하는 등 파격적인 편집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인 '수돗물 불소화 찬·반 논쟁'과 관련한 상세한 보도와 전문가 의견 게재, 중앙정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저지와 관련 소식 등이 그것들이다.

행복한 인천, 웰빙 인천, 인천 피플, 시민기자실, 인천브리핑, 바이 인천 등 모두 6개 섹션으로 이뤄진 시 인터넷신문은 다시 23개의 세부 쪽지를 통해 시민기자들 눈에 비친 제도개선 사항, 생활 주변의 훈훈하고 감동 어린 이야기, 기자 현장리포트, 전문 기고가의 글 등으로 독자들을 만난다. 시에서 제작, 발행하는 만큼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시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중요한 정보로 취급한다.

신문 구성을 위해 상임편집위원 1명과 웹디자이너, 행정지원 담당 등 모두 3명의 전문가가 시민기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향후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각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기획기사를 개발해 다채로운 읽을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인천다운 신문 만들기'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 그들의 국적은 '인천일본인'

바다 건너 이국땅 '인천'에 고향을 두고 그 향수를 달래기 위해 매년 모임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이 있다. 몸속에 흐르는 피는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인천 구석 구석의 모습과 그 시절의 향기가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난 10월 17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일본인천회' 전국대회가 열렸다. 8·15광복 이전, 인천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를 따라와 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일본인들과 그 가족들이 매년 한차례씩 모임을 갖는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일본인천회'는 1984년부터 일본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 4개 지부에서 전국단위로 순회하며 모임을 갖는다. 목적은 하나, 순전히 인천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고 싶어서이다. 모임이 결성될 무렵에는 회원수가 900여명에 달했지만 작고한 분들이 점점 늘면서 현재는 500여명 정도다. 70대 후반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회원들이 대부분이지만 1년 중 모임이 있는 날은 학창시절의 생생한 기억으로 어린애마냥 설렌다고 한다.

이번 대회에 우리시에서는 박상기 국제자문대사와 인천향우회 기병태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마모토시(市) 미사마 테루오(三嶋輝男)부시장, 구마모토시의회 오치미즈 키요히로(落水清弘) 전(前) 의장, 구마모토인천회 오쿠무라 키쿠조(奥村嘉久三) 회장을 비롯해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기 국제자문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날 작은 도시였던 인천이 세계를 향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고 인천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회원들이 인천에 대해 자긍심과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마모토시(市) 미사마 테루오(三嶋輝男)부시장은 "의미있는 이 모임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며 인천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찬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하야카와(早川)씨의 '하와이 춤' 공연도 펼쳐졌다. 인천상업, 인천공업, 인천여고 등을 졸업한 회원들은 여기저기에서 학창시절의 추억을 나누었다. 인천 만석동에서 태어나 인천남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대성목재 공장장을 지냈다는 오쿠무라 키쿠조(奥村嘉久三·92세) 회장은 인천을 떠나올 때가 가장 슬펐고 그 당시 일본이 오히려 외국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인천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이야기했다. 그 날 하루 '인천인'으로 돌아간 일본인천회 회원들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도 풀어도 아쉬움이 남는 표정이었다.

글\_ 김미희 (편집위원 · meehee75@incheon.go.kr)





# 지구촌 곳곳에 ‘이웃’을 만든다

최근 우리시에 외국인의 출입이 잦아지고 있다. 국제공항의 개항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의한 국제교류는 물론 동아시아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시가 국제교류에 있어 선봉에 서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점점 더 다양하고 확대되는 국제교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인천국제교류센터가 문을 열었다.



## 우리시 국제교류에 날개를 달다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시는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 100여건에 달하는 국제교류가 있었다. 지난 7월에는 물류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동북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한·중·일 10개 도시 간 ‘물류부회’가 우리시에서 열리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국제교류의 폭이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국내처음으로 UN 산하기구인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 기술개발센터(APCICT)’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국제학교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의 이동이 잦아질 전망이며 가깝고도 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시가 국제교류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국제관련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지난 10월5일 ‘인천국제교류센터’가 남동구 구월동 현대해상 건물 8층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국제교류 민간전문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재단법인 형태의 국제교류센터에는 우리시 전(前) 국제자문대사 최경보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외국어에 능통한 12명의 전문직 직원이 선발돼 센터의 진용을 갖추었다.



## 시민들의 1:1 교류도 국제교류센터가 책임진다

인천국제교류센터는 다양한 국제교류사업과 자매도시와의 협력사업, 남북교류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다. 국제교류 활성화 중장기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지원을 맡게 된다. 또 해외 도시 교류협력사업 지원과 각종 국제회의 참가 지원 및 정보 제공업무도 하게 된다.

100% 시(市)가 출자해 설립한 기관이긴 하지만 비영리 민간 국제교류센터의 성격상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국제 이해 프로그램인 연수나 강좌도 실시하고 있다. 그 예로 인천지역 학생이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앵커리지시의 ‘알래스카 앵커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로 유학을 갈 경우 저렴한 학비로 유학할 수 있다. 물류, 간호 관련 학과가 우수한 앵커리지대학교에서 공부할 경우, 대학교 과정 1년간 26학점 신청 시, 학비가 연간 \$2,912로 원래학비의 1/3수준이 적용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교류센터가 시민들에게 적극 상담해주고 추천서 작성 등을 도와준다. 자매도시 관계를 맺음으로써 시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 가까이에서 국제교류의 문을 열기 위해 센터 한 편에는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실도 마련됐다. 민간차원의 교류확대의 일환으로 외국인 거주자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각종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교류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자매·우호 도시 관련 단체간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남북교류와 각종 국제교류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최근에는 마카오에서 열린 제4회 동아시아대회와 방콕에서 개최한 제1회 실내 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해 민간홍보대사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홍보활동을 펼쳤다.

글 \_ 김미희 (편집위원 · meehee75@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 최경보 대표의 솔직, 담백 한마디

### “국제교류의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최근 문화, 경제, 사상 등의 이해문제로 국가간 교류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령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 혹은 교과서 왜곡문제나 독도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간 교류에서 악재로 작용해 정상회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국가간의 첨예한 외교적 문제로 국가 교류에는 한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자체는 이런 경우에 교류 프로그램만 확실하다면 정치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도시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제도와 문화가 서로 다른 국제도시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각각의 다른 색이 모여 조화를 이룬 무지개처럼 하나로 묶는 ‘레인보우 벨트’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을 국제교류센터의 최대 비전으로 삼고 있다.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들이 국제교류를 함께 있어서 나타나는 공백을 국제교류센터가 메우고 협조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내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인천 국제교류의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는 게 최경보 대표이사의 솔직한 심정이다. 성과위주의 보이기식 국제교류가 아니라 시민들의 사고를 바꾸고 저변을 확대해가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포부다.





## 인천을 물류 인력 요람으로



지영호  
(물류인적자본연구원 원장)

정부가 우리나라를 물류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물류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양성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실적에 쫓긴 나머지 물류 관련 전문특수대학원의 커리큘럼이나 사업 운영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등 전략적인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행히 인천에서는 각급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물류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대학교가 지난해 국내최초로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했으며 인하대학교도 지난해 아태물류학부를 개설했다. 재능대학도 올 초 유통물류학과를 개

설했으며 영종정보고는 최근 인천국제물류고로 교명과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물류 관계자들도 물류인력 양성 지원 차원에서 지난 10월에는 인천물류발전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인천이 국내 뿐 아니라 동북아를 대표하는 물류인력 양성 메카로 부상하기 위한 날개 짓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 지역 학교들은 아직 물류기업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따라서 인천이 동북아를 대표하는 물류인력양성 허브 도시로 거듭나고 인천 지역 학교들이 국내외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대거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려 한다.

첫째 인천시는 인천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복합물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여성의 물류산업 참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 물류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물류 전문가와 여성 물류인력 양성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둘째 인천시는 물류산업 종사자, 대학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물류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커리큘럼과 학습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IT, 물류정보, 물류시스템, 국제물류 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예컨대 물류전문대의 경우 2년 과정으로는 물류분야 전문 소양을 제대로 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인천시가 예를 들어 인천시립전문대 등과의 협의를 통해 3년 과정의 물류기술시스템학과, 물류전략학과, 국제물류학과를 신설한다면 물류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학들은 우수한 인재 모집을 위해 물류 분야 장학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물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고도의 신지식과 산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학교 안에 비전공자들과 직장인들이 무료나 20% 정도의 수강료만 내고 물류를 공부할 수 있는 물류 전문인력 양성반(물류관리사 시험대비반)을 개설하고 수료자 취업을 알선해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같은 방안들을 통해 인천이 장차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북아 각국의 인재들이 물류를 공부하기 위해 대거 몰려드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인력 양성 허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 MOO? 아~ MOO!

### MOO에서 운영하는 웹진 MOO는

Mirror Of Our youth(청소년의 거울)이란 뜻으로 청소년의 손으로 청소년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니셜만으로는 '무'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맛 좋은 무를 생각하며 저희 MOO도 함께 생각해주세요!



### 新 MOO 소식

#### 청소년 웹진 MOO가 새! 새! 새단장을 합니다

기존의 홈페이지가 확~ 달라집니다. 처음 방문하는 분들께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홈페이지 구성을 너무나도 쉽게, 세련된 디자인으로 화악~ 바꿨습니다. 홈페이지 새단장으로 새로워진 청소년 웹진 MOO, 걸도 속도 모두 잘 익은 MOO를 2006년부터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moo.incheon.go.kr로 놀러와요~

웹진 MOO인 만큼 저희는 신문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활동은 moo.incheon.go.kr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게시판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크로폴리스(사회부)** 청소년의 예리한 눈으로 보는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아무래도 따분한 이야기 같지만 MOO에서는 180도 다른 사회가 펼쳐집니다. MOO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회는 어떨까요? 혹시 한자로 가득한 신문이나 지루한 아나운서들의 얘기로 가득한 뉴스가 부담스러운 청소년이라면 저희 웹진 MOO에서 사회를 접해보세요.

**나라(교육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매우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누구든지 치열한 입시생이 되어야 하는 우리. 최신 입시 정보를 웹진 MOO에서 찾으세요. 또 나라에서는 유명 대학 입학생, 각 고등학교 전교 1등과의 인터뷰도 수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부방법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청소년 웹진 MOO 나라에서 성적 우수생들의 공부 방법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조?

**매니아(문화부)** 청소년은 주변인, 항상 공부, 공부만 할 수는 없겠조? 특히 풍부한 문화생활이 힘든 청소년 여러분께 짧고 굵은 문화 소식 및 정보를 매니아에서 알려드립니다. 미처 가지 못한 고등학교 축제 소식과 웹진 MOO의 하이라이트! EVENT도 매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웹진 MOO에서 재밌는 기사도 읽고 EVENT로 상품도 타고 1석2조가 따로 없네요.

**그 밖에도** 교육-자격증을 따자, 직업의 세계, 외국어 한마디 등, 문화-추천도서, 열리어답터, MOO 시네마 등, 오락-만화방, MOO 자키, 게임나라 등이 있습니다.

글\_ 이수진 (제5기 청소년웹진 MOO학생기자 / 석정여고 2학년)

#### 2006년 청소년 웹진 MOO 6기 학생기자를 뽑습니다


앞으로 새로워진 MOO를 이끌어 나갈 학생기자를 뽑습니다. 2008년부터 내신을 중요시한다는 교육부의 방침 때문에 예년보다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입시제도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소신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은 저희 청소년 웹진 MOO입니다. 6기 학생기자 선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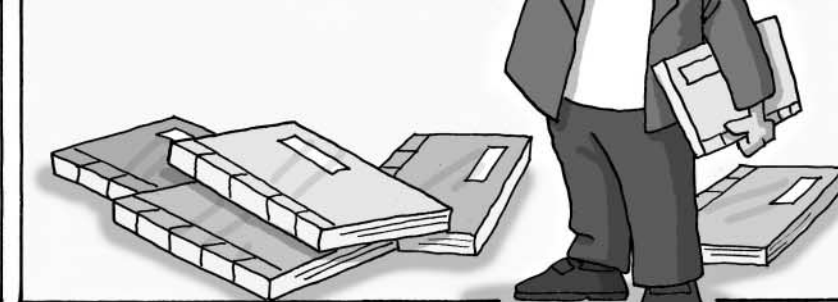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기상관측 시작

그림 \_ 김신 (www.cyworld.com/sinitoon)

사실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은 기원전부터 시작되었죠.



삼국시대 문헌에도 기상에 관한 예측 및 예측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엔 독립적으로 기상일을 맡아보던 관청이 있었고 조선조 세종때는 측우기와 해시계 등 과학적인 기상 관측기를 개발해 쓰기도 했죠.



이런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때의 업적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대적 기상업무가 처음 시작된 것은 일본이 러일전쟁을 위해 1904년 인천을 비롯 목포와 부산, 원산 등에 기상관측소를 설립하면서부터다.




이 사진은 초기 인천관측소의 모습입니다.

당시 인천관측소는 국내 13개 도시에 있는 측후소는 물론 만주지방의 관측소까지 통솔하였고, 일본 기상대와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와 기상정보를 주고 받았답니다.



그만큼 보유기술도 뛰어났죠.

인천기상대는 원래의 업무인 기상관측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시보(時報)를 알리는, 당시로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해방 전만해도 시계가 흔치 않았기에 시민들은 관측소에서 매일 정오에 울리는 대포소리로 시간의 흐름을 알았답니다.



정오입니다, 점심 드세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유공원이 있는 응봉산을 정오에 대포를 쏘다해서 오후산(午砲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해방후 인천기상대는 48년 문교부산하 국립중앙관상대로 발족해 모든 기상 업무를 관장해오다



53년 국립중앙관상대가 서울로 옮기면서 인천측후소로 명칭을 바꿨으며



92년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현재 제물포고등학교 뒷쪽에 있는 인천기상대의 모습입니다.





# 노란 은행잎과 눈빛과 미소와...

인 천 광 명 원 임 남 숙 원 장



은행잎들, 그 금린(金鱗) 같은 수천의 이파리들이 교정 가득히 쏟아져 내린다. 누가 고요히 신라나라 금관을 흔드는 것일까. 온통 동화 속 나라처럼 아름답다. 하늘은 왜 저리 푸르고? 11월인데 바람 또한 하나 차지 않다. 나른할 만큼 오후의 햇살이 물든 잎사귀들 위에 날개를 내리고 잔잔하게 온기를 묻혀 준다. 햇살의 목소리. 속삭임. 쇠르르, 쇠르르 노란 축복을 받으며 넓은 교정을 지나 현관 앞에 선다. 여기가 인천광명원(仁川光明院), 그리고 인천혜광학교(仁川惠光學校).

“물론이고말고요. 아이들도 틀림없이 볼 수 있지요. 아마 아이들 마음의 눈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름답게 저 노란 빛깔을 볼 걸요.”

인천광명원은 시각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생활 시설이고, 인천혜광학교는 시각장애인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다. 저들 시각장애인들이 창밖의 노란 은행잎을 볼 수 있다면..., 어찌고 껍도 가슴 아픈 듯이 같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자, 여기 원장 임남숙(林南淑) 씨는 대변에 이런 아름다운 말을, 세상에서 참으로 듣기에 곱고 얼마든지 가슴에 담아 두어야 할 가룩한 언어를 발음하여 이쪽의 경솔과 무지와 무례를 징별하고 경계한다.

또박또박 차분하게 그런 말을 하는 동그스름한 얼굴 모습이 이제는 이런 도시에서는 볼 길이 없는 코스모스를 닮았다. 은행잎과 코스모스와 하늘빛과 그리고 가지런하게 입가에 물리는 임 원장의 상냥한 미소가 여기 오는 동안 마음 한 구석에 숨겨 두었던 옹지 않은 생각과 편견을 비로소 깨끗이 씻어준다. 맞다. 세상에서 가장 고운 밀도의 가을이 한없이 푸르게 이 인천광명원에 와 머무는 것 같다.

본관 현관문 머리 위에 매달려 규칙적으로 맑은 음향을 내는 차임벨 소리도 가을을 닮기는 마찬가지다. 그 맑은 소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현관문이 여기 있다’는 위치 표시라는 것이다. 그렇구나. 그런 맑은 소리, 온화한 소리, 가슴에서 나오는 눈물보다 깨끗한 소리들이 아이들 귀로 들어가 마음의 색깔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길도 꿈도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1956년 중구 송월동 3가에 광명원을 열었던 것이 시초였지요. 6·25 전쟁이 끝나 휴전이 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뜨인 것이 고아나 불구자들이었을 거예요. 그 무렵 고아는 얼마나 많았고, 또 상이자(傷痍者)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버지는 교회 장로이셨는데, 그런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도 시각장애자들을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 6명을 모아 시작하셨대요.”

임경삼(林敬三) 장로, 그리고 ‘Inchon Blind Orphanage.’ 중구 송월동, 빈지문이 달려 있는 이층집과 그 옆 높은 축대 위에 또 이층집, 이 특이하게 지은 이층집 인천맹아원! 그 집이 지금 내 머리 속에도 환하다. 학생 시







“물론이고말고요, 아이들도 틀림없이 볼 수 있지요, 아마 아이들 마음의 눈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름답게 저 노란 빛깔을 볼 걸요.”



절 그 앞을 지나다닌 기억이 있다. 지금은 부평구 십정동 576번지로 이전해 와 있지만, 그 아버지의 시작이 딸의 손에 의해 이어져 오는 것이다. 물론 해광학교는 부군이 나누어 맡아 교장으로 있다. 네 시작은 비록 미약하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나 굳이 임 원장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 미소. 그리고 또 담백한 미소뿐이다. 이층 창문들에도 팔랑팔랑 노랑나비가 한 마리 날아와 앉는다. 그 미소에 대한 대답이다.

“오셨으니까, 학교 한 번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이쁜지…”

세상에 살면서 오늘까지 누구 하나를 그토록 마음 깊이, 가슴을 다 내줄 만큼 사랑해 보고, 아껴 보지 못한 이쪽은 그런 임 원장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느님이 가을을 만드시고 낙엽을 만드신 까닭은 가을을 사랑하고 낙엽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일 것이다. 임 원장은 우리와 달리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아이들이, 우리 모르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학생들을 위해 건물에는 계단이 없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그런 통로를 상상하면 된다. 완만하게 경사가 진 평평한 통로를 따라 이층에서 삼층으로 아이들 기숙사도 교실도 강당도 실습실도 두루 돌아다녀 보는 것이다.

“아이들은 마음으로 다 보고 있어요.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시죠? 아이들 머리 속은 차라리 상상력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학생들이 점토로 빚은 ‘게’ 나 ‘강아지’는 눈을 뜬 사람만든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미술전시회를 하면 아이들이 가진 상상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실로 압권이라고. 눈쁜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해 낼 수 없는 다른 우주, 다른 오묘한 세계에 대한 표현이며 우리의 말로 그것을 형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문득 미국 영화 배우 알 파치노의 명연기가 돋보인 ‘여인의 향기’를 떠올린다. 그 멋진 맹인. 그 멋진 댄스. 그러면서 비로소 임 원장의 감동과 경탄에 동참한다.

학교 건물 앞에 돌에 새겨 세운 ‘나는 할 수 있다’는 구절을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언제 누가 데려가서 손으로 더듬

어 읽게 해 준 적이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들 모두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비록 손으로 더듬어 점자를 읽지만, 그것은 오히려 무한한 우주를 더듬어 이해하고 상상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은 한 마리의 게와 한 마리의 강아지로 항상 제 눈 속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쪽 우리 청맹과니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중·고등부까지 120명의 학생이 이 해광학교에서 생활한다. 열두 분의 생활재활지도교사와 그 외에도 간호사, 보행지도사, 영양사 같은 선생님들까지 해서 모두 스무 분이 이 아이들을 맡아 지도하고 계신다. 주로 사회 적응 훈련과 지식 교육. 임 원장은 여기 교육의 본질을 서두르지도 태만하지도 않은 ‘자기만의 리듬을 즐기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얼핏 얌전하고 상냥한 인상에 비해 교육적으로 매우 뚜렷한, 상상도 못한 독특한 지론을 말해서 우리 일행 모두 내심 무척 놀랐다. 임 원장의 따님까지도 미국서 검안의(檢眼醫)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마 어머니의 그런 면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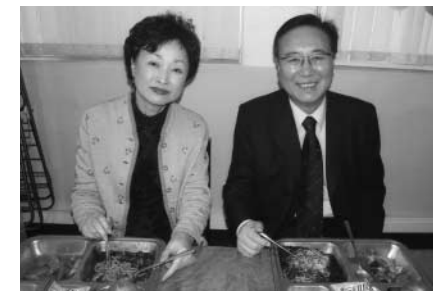
멀리 보이는 부평공동묘지가 그 먼 북망(北邙)처럼 오늘 그다지 쓸쓸하고 춥지 않다. 원통이고개도 그 옛날 역사처럼 꼭 분하고 원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단아하게 투피스를 입은, 벌써 손자를 보았다는 젊은 할머니 임남숙 원장이 이렇게 매일 자신의 일을 기뻐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에 이쪽도 텅달아 그런 기분이 올라 온 모양이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을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김현승, 「가을의 기도」>

아이들의 ‘눈빛’ 과 그리고 햇빛 속에서 웃던 임 원장의 상냥한 미소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일찍 돌아와 가을의 기도를 드린다. 오는 길에도 은행잎은 지천으로 쏟아져 내렸다.



부군인 명선묵 해광학교장과 함께 교내식당에서



설립자인 부친 임경삼 장로의 사진 앞에서



## 눈싸움 할 때, 조심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주부이  
자, ‘월간 굿모닝인천’을 사랑  
하는 네티즌입니다. 매년 크리

스마스가 다가오면 생각나는 일이 떠올라, 혼자 피식 웃곤 합니  
다. 아마 제 신랑도 그때 일이 생각나겠지요?  
바야흐로 지금 제 신랑과 데이트에 한창 물이 올라있었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몇년, 몇십년만에 부산에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죠. 기분이 너무 좋아 아이들처럼 손잡고 눈길도 걸어보구요,  
눈사람도 만들어 보았죠. 이때까진 마냥 행복했었습니다. 다가올  
불길한 일은 모른채 말이죠. 그러다 신랑이 눈싸움을 하자고 했  
습니다.

처음엔 눈을 조그맣게 만들어 던졌습니다. 너무 기분이 up 되었  
나요? 슬~슬~ 장난끼가 발동했습니다. 안통해도 될 마음이 그  
때는 잘 통했나봅니다.

몰래 눈 속에 커다란 돌을 숨겨서 눈으로 덮여 가장한 뒤 서로  
의 얼굴을 향해 천진난만하게 힘차게 던졌습니다. 약~~~~ 비명  
소리가 난 뒤 그길로 저는 치과로, 신랑은 외과로 몇 주를 치료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데이트 코스는 서로 다  
니는 병원에 같이 가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눈싸움 할 때 자제하며 장난치세요. 저희 커플꼴 나지  
마시구요. 그 일이 인연이 되었나, 결혼해서 지금은 예쁜 딸 낳  
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현정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 기타로 불우이웃돕기

대학교 때 난 통기타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겨울방학으로 들어서  
자 삶이 아주 따분하고 무료했다. 12월 31일을 얼마 앞두고 무작  
정 학교를 찾아갔다. 아무도 없을 거라는 내 생각과는 달리 동아  
리 방엔 4명의 선후배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아르바이트도, 공  
부도 안하고 빈둥빈둥 논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한 후배가 이런 말을 던졌다. “선배님들, 우리 대학로 나가  
서 공연해요. 뭐 괜찮으면 불우이웃성금도 모으고요.”순간 난 뒤  
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왜 미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우리 5명은 모두 통기타 하나를 어

깨에 두르고 대학로로 나섰다. 그리  
고 무작정 자리를 잡고 기타를 튕기  
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푸른하  
늘, 변진섭, 이문세, 이승환 등등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다 꺾고 있었던 우리의 레파토리는 멈추  
지 않았다. 하나 둘 모여드는 관객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채워주  
는 많은 동전과 지폐. 우리는 더 열심히 기타를 쳤고 더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나중에 같은 학교 봉사동아리를 통해서 우리의  
불우이웃성금은 전달되었다. 내가 태어나서 가장 보람찬 연말을  
보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기타를 메고 대학로로 나가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

우상민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카드에 정성을 담아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 가족에겐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 가을  
에 따 모은 단풍잎과 오색 낙엽을 카드에 정성껏 예쁘게 붙여  
고마운 분들에게 보내는 일이다. 12월 1일부터 한 분 한 분에게  
고마움의 뜻을 담아 12월 10일 안에는 다 발송한다. 우리가 좀  
일찍 보내는 이유는 연말에 꼭주하는 우편배달 업무를 피하고  
나름대로 받는 이가 연말의 분위기를 한층 더 일찍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가족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케이크 촛불을 켜놓고 아이들과  
들러 앉아 한 해를 반성하고 감사의 시간을 갖는다. 올 12월 31  
일에는 온 식구가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러 보신각으로 가서 새  
해 첫날을 맞이하고 싶다. 인천에도 제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  
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올해도 성탄 카드 보낼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강현숙 (연수구 연수3동)

## 피 맺힌 크리스마스

1999년 겨울. 난 경기도의 모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사이  
브, 사장님은 내 들끓는 마음을 아셨는지 휴  
가를 보내 주셨다. 난 너무 기쁜 나머지 양손에  
굴과 맥주를 가득 안고 집으로 달려갔다. 현대, 그 전날부터 평  
평 내렸던 눈이 쌓여서 길은 완전 빙판이 되어 있었다. 집까지  
거의 다 왔을 때 오르막을 올라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발을 헛  
딛고 말았다. 내 양손엔 음식들이 가득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난  
이마를 땅에 박을 수밖에 없었다. 머리가 깨질 듯한 강한 통증이  
느껴져 왔다. 손을 이마에 갖다 대어 보았다. 허걱! 피가 묻어 나  
왔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난 빙판길의 내리막을 타  
고 그대로 계속 미끄러졌고, 아주 느린 속도로 지나가는 자동차  
밑으로 쏘옥 빨려 들어갔다. 자동차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고  
내 다리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끼어 있었다. 순간 난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자동차는 멈추어 섰고 난  
가까스로 일어나 짐을 챙겼다. 집으로 와보니 맥주와 굴은 다 깨  
져 있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지만 난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이마는 붉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지금도 연말만 되  
면 그 때 그 아찔했던 순간이 생각난다.

김태호 (부평구 청천2동)



## 산타할아버지 우리소원 꼭 들어주세요

작년 크리스마스였답니다. 저희 두 아이들  
은 크리스마스 전날 트리 앞에서 산타할아  
버지께 소원을 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서 제가 아이들에게 “산타할아버지께 무슨  
소원 빌었어? 산타할아버지께서 소원 들어  
주신다고 하셨니?” 하고 물으니 두 아이  
모두 “내 소원은 비밀이야.”하며 제 물음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아이 모두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머리 위로 하트를 크게 그리며 큰 소리로 “산타 할아버  
지 사랑해요. 알라뷰~~.”하며 애교를 떨더라고요. 그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사이 산타할아버지께서 살짝 오셔서 아이에게 선  
물을 주고 가셨답니다. 순진한 저희 아이들 아직도 산타할아버  
지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아이들의 선  
물을 몰래 준비해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장준영 (남구 주안2동)

## 송년회

몇 년전 송년회가 있었던 그 퇴근길을 잊을 수가 없다. 한해를 보  
내며 이룬 것이 없다는 생각에 참으로 우울한 기분으로 송년회를  
끝내고 간단한 술자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막 내린 눈이라 걸어가는 만큼 발자국이 짙히고 뒤돌아  
보니 아스라이 지나온 발자국이 보였다.  
지금은 철거되고 재건축이 시작되는 주공 아파트 옆에 선 가로등  
으로 끝없이 달려드는 눈송이들이 꽃잎처럼 아직 남은 내 인생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 눈이  
내린 길이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이며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  
았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  
다.  
비록 눈이 내린 길에서 느꼈던 감정이지만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  
하며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그날의 눈이 정말 나를 축복했을 거  
라는 믿음 때문이다. 살면서 그 기억이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다시 연말이 되어 이룬 것이 없다는 느낌은 들지만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도전을 준비해 본다.  
2006년아 기다려라. 운명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동키호테가 되  
어본다.

이상렬 (남구 주안8동)

## 다음달 글의 테마는 ‘새해 각오’

다음달 테마는 ‘새해 각오’입니다. 새해를 맞아 스스로 다짐하는 각오나 가족, 친구와 하고픈 약속에 대한 글을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  
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  
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화면 왼쪽 프레임 하단의 ‘월간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  
감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 GoGo 광란의 현장으로

2004년 마지막 날 저녁 7시. 나와 예쁜 친구는 들뜬 기분으로  
콘서트 현장으로 가고 있었다. 한번 가면 매력에 푹 빠져 또 찾  
게 된다는 가수 이승환의 ‘열혈! 환장! 무적! 콘서트!’  
두근두근 콩닥콩닥 거리는 마음을 안고 콘서트장에 도착했다.  
공연 처음엔 동료 가수들의 축하무대로 분위기를 달궜놓은 뒤  
드디어 이승환 씨가 나왔다. 깽~!! 악~!! 남녀노소 모두가 열광  
하며 뜨거운 함성으로 콘서트는 시작됐다.  
무려 4시간 동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뛰고 노래부  
르며 새해도 함께 맞았다. 5~4~3~2~1~0~!!!! 화려한 폭죽소  
리와 함께 정들었던 2004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했다.  
“샘아 축하하~” 친구에게 첫 새해 인사도 보내고 앞으로 더 잘  
지내자는 애정 어린 눈빛 교환도 했다.  
광란의 콘서트가 끝났다. 4시간 동안의 열정적인 무대여서인지  
체력저하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  
했다. 공연 후 지하철 첫차 타기까지는 약 3~4시간의 사이가  
있었다. 오뎅 국물이 눈물나게 그리울 정도로 걸으면 덜덜 떨고  
있었지만, 4시간 동안의 열기와 친구와 함께 한해의 마지막 날  
을 기쁘게 보냈다는 것으로 마음만은 뜨거웠다.

신한나 (서구 석남동)

## 최고의 프리포즈

2001년 12월 31일은 내 평생 잊지 못할 멋진 프리포즈를 받은  
날이다. 2년 간 사귀어 오던 오빠가 집 앞에 와서는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하는 것이다. 난 부모님께 간신히 허락을 받고 오빠 차에  
올라탔다. 속초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오빠는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주면서 들어보라는 것이다. 거기엔 오빠의 음성 편지가 담  
겨 있었다. <부진이를 알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아주 큰 축복으  
로 넘쳐나고 있어. 어렵게 시작한 사랑인 만큼 죽을 때까지 소중  
히 지켜나가고 싶다. 부진아 사랑해> 이런 내용이었다. 편지의  
말미엔 오빠가 직접 기타를 치면서 부른 노래도 있었다.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평평 울기만 했다. 사실 그 전부터 오  
빠랑 많이 싸워서 헤어질까하고 고민하고 있던 터였는데 말이  
다. 오빠는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면서 결혼을 하자고 했  
다. 지금 우리는 같은 침대를 쓰는 부부가 되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싸우긴 하지만 오빠와 결혼한 걸 참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연말에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볼 계획이다. 이번엔 내가  
오빠에게 프리포즈를 할 생각이다. 나랑 결혼하자고 해 줘서, 나  
랑 살아줘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말이다.

김부진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 이번 달 주제 ‘크리스마스 풍경’

### 성탄파티

작년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성탄파티에서 성탄 축하공연을 했답니다.  
김승엽 (부평구 십정2동)



### 야들아, 나처럼 해봐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성탄절 음악회 중 학생들을 무대에 올려놓고 마음이 놓이질 않는 선생님이 앞에서 정작 학생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율동을 합니다.  
최승은 (남동구 구월1동)



### 크리스마스 풍경 조형물

작년 크리스마스에 저희 교회에 전시해 놓았던 크리스마스 풍경 조형물 사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학수 (연수구 옥련동)



### 우와~ 정말 큰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다

재작년 크리스마스에 친정식구들과 함께 단양으로 놀러갔었습니다  
숙소 로비에 대형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어요, 저희 두 아이들은 매일 집에서 작은 트리만 보다가 아주 큰 대형 트리와 그 밑에 큰 선물박스들을 보더니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그 박스가 빈 박스인줄도 모른 채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답니다. 어때요 저희 아이들 무척 사랑스럽지 않나요?  
김희정 (남구 주안4동)

###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 민희, 민근이의 맑고 예쁜 웃는 모습처럼 올해는 마음의 선물로 이웃들과 함께 넉넉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어떨까요?  
민희, 민근아 Merry Christmas~  
박상희 (연수구 청학동)

### 옛 추억을 그리며

보고 싶다 친구들아, 7년이란 시간이 지났구나. 이젠 의젓한 중학생, 유치원이란 세월이 너무 그리워. 크리스마스에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부채춤을 마음껏 뽐내며 깔깔깔 웃던 시절이 그림과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사진 기억 나니?  
박은솔 (남구 주안4동)



### 산타할아버지를 만나다

성탄을 맞이해 조카유치원에서 산타잔치 행사를 열었어요~ 빨간 모자 아가씨가 큰 조카 주연이랍니다.  
강또롱 (서구 가좌2동)



### 크리스마스의 아련한 추억

동생이 크리스마스 날 유치원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어릴 적이지만, 참 귀엽지 않나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릴 적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지만 아무튼 참 아련한 기억입니다.  
오영림 (남구 학악1동)



### 7년전 크리스마스

지금은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생 셀라. 보고 싶은 마음에 앨범을 보다가 사진 한 장 보냅니다. 호주에서 멋진 성탄 보내렴. - 언니가  
강윤희 (서구 가정3동)



## info box

### 희망 2006 이웃사랑캠페인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06 이웃사랑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모금기간 : 12월 1일(목) ~ 2006년 1월 31일(화)

• 모금창구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812-6554~8)

각 시중은행 지점 및 농협, 수협, 우체국

• 후원 :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 '희망 2006 이웃사랑캠페인' 참여방법

- 사랑의 전화 060-700-1212 (1통화 2,000원)

- 동(면)사무소를 통해 배포되는 지로용지를 통한 참여

- 한사랑캠페인 (월 3,000원 이상 일정액 기부하기 운동)

- 각 시중은행 '사랑의 계좌'를 통한 성금접수

- 사랑의 계좌 현황 (예금주 : 인천광역시공동모금회)

국민은행 208-01-0505-298 한미은행 301-52838-257

우리은행 106-155901-13-101 농협 147-01-182301

※타은행의 계좌번호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성금을 보내주신 후 본 모금회로 연락주시면 영수증을 보내드리며, 소득세법 제34조 2항 7호에 의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 9호에 의해 손금산입이 됩니다.

문의 \_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12-6555)

### 자궁암 무료 검진 받으세요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여성전문센터에서는 해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자궁암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6회를 맞는 자궁암 무료 검진은 인천에 사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시 : 12월 1일(목) ~ 14일(수)

오전 9시 ~ 오후 4시(토·일요일 제외)

• 검진대상자 : 여성이면 누구나

• 준비물 : 건강보험증과 신분증

• 결과 : 전화통보

문의 \_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여성전문센터 (460-3711~2)

### 청소년취미교양교육 수강생 모집

우리시 청소년회관에서는 겨울방학 특강 및 청소년 취미교양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기간 : 2006년 1월 3일(화)~1월 26(목)

• 접수기간 : 12월 1일(목)~20일(화) 인터넷선착순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만가능함

• 대상 : 인천지역 24세 이하 청소년

• 수강료 : 무료(교재비 및 재료비 본인부담)

• 교육 과목 : 12개 분야 37개 강좌(763명)

- 전통분야 : 사물놀이, 태권, 전통연 만들기, 예절교실

- 음악분야 : 하모니카, 어린이난타, 드럼, 요들송, 기타

- 공예분야 : 토탈공예, 한지공예, 도자기, 칼라믹스

- 미술분야 : 창작미술, 만화그리기

- 과학분야 : 레고닥타, 과학교실

- 상담 : 자기성장

- 체육분야 : 요가, 힙합댄스, 재즈댄스

- 정보화 : 컴퓨터활용자격증반, 플래시애니메이션, 페인트샵

- 국어 및 언어분야 : 발표력향상동화구연, 한자교실, 논술교실

- 문화예술 : 자기표현 연극, 전통무용

- 수학분야 : 재미있는 수학교실

- 취미분야 : 정서안정을 위한 바둑, 신기한 마술

## 지역건강보험료 조정됩니다

11월분 지역건강보험료부터 최근 확보한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합니다. 신규자료 일괄적용은 과세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확보하여 11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이 변동된 세대에 한하여 보험료가 증감(增減)변동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 : 2004년 5월 신고분 ⇒ 2005년 5월 신고분

• 연금소득 : 2004년도 지급분 ⇒ 2005년도 지급분

• 농업소득 : 2003년도분 ⇒ 2004년도분

• 생활수준점수가 증가된 경우는 가입자, 소득, 재산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임

※기타 민원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민원실' 참조

신규과세자료 적용은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표금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므로 전체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이의신청 : 폐업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조정해 드립니다.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452-7114, 1588-1125 / www.nhic.or.kr)



한편 겨울방학을 맞아 우리생활에서 필요한 전통예절교육을 가족과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 접수 기간 : 12월 1일(목)~20일(화) 인터넷선착순접수
- 교육기간 : 2006년 1월 4일(수)~25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오후 3시 30분
- 접수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만 가능함 (매회 선착순 4가족)
- 대상 : 인천지역 24세 이하 청소년
- 수강료 : 무료(교재비 및 재료비 본인부담)
- 접수 및 문의 \_ 청소년수련관 수련팀  
(465-6820~8, http://i-youth.incheon.go.kr)

### 제2회 조경상 공모합니다

Green 인천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조경현장을 발굴해 시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05 인천 조경상을 공모하고 시상합니다.

- 공모대상 : 2003년 7월 1일 ~ 2005년 10월 31일 기간 중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시공 완료된 옥외건축물  
※조경시공자를 대상으로 하되 설계자도 응모 신청 가능
- 분야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옥외공원, 공원·녹지, 가로조경 등
- 작품접수 : 11월 17일(목) ~ 12월 6일(화)
- 작품 접수처 :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
- 작품심사 : 12월 13일(화) 오후 2시
- 심사발표 : 작품심사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수상작 개별 통보)

문의 \_ 시 녹지조경과 (440-3662)

#### 인하대병원 무료 건강공개강좌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 건강공개강좌를 엽니다.

- 일시 : 12월 27일(화) 오후 3시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과민성 방광의 진단과 치료
- 강사교수 : 비뇨기와 박원희 교수
- 기타 :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무료 주차권이 발급됩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 교육연구부 (890-2640~2)

#### 인천여성의광장 2006년 제1기 수강생 모집

- 우선모집 : 전문직업교육 (수강료 무료)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보장시설수급자(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모집기간 : 11월 28일(월) ~ 12월 9일(금) 방문접수
- 일반모집
  - 대상 : 인천시 거주 시민 (단, 체육과정은 남성 제외)
  - 접수방법 : 12월 12일(월) ~ 14일(수) 인터넷수강신청 12월

- 16일(금) 컴퓨터추첨을 통한 홈페이지 게시 ⇒ 12월 20일(화)까지 수강료 납부 ⇒ 수강등록완료
- 교육프로그램

- ▷전문직업교육 : 어학장기교육 (영어, 일본어, 중국어), 웹디자인기반, 플래쉬애니메이션제작, 홈페이지와 쇼핑몰제작, 컴퓨터활용능력(국가자격증), 컴퓨터 OA, 워드프로세서(국가자격증),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국가자격증) 토익, 영어회화첫걸음, JPT시험대비반, 공인중개사(국가자격증), 부동산재테크(공·경매포함), 화훼장식기능사(국가자격증), 건강다이어트관리사(민간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국가자격증), 신나는 상차림, 독서지도사(독서,글쓰기)
- ▷문화·체육교양교육 : 디지털사진교실, 생활건강식, 스케치교실, 서양화교실, 생활원예, 웰빙기공요가, 재즈댄스, 발리댄스, 태보다이어트댄스, 헬스
- ▷무료교육 : 나에게로의 여행(성평등한 인간관계와 인생설계), 전통예절과 다도

- 모집기간 : 12월 12일(월) ~ 14일(수)
- 교육기간 : 2006월 1월 6일 ~ 3월 31일 (수강료 6만원)
- 문의 \_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 교육전산팀  
(815-7101~3, www.lncheonwp.go.kr)

### 여성복지관 2006년 1기 수강생 모집

- 모집일시 및 방법
  - 문화아카데미 :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추첨 또는 선착순
  - 직업전문교육 :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추첨 또는 선착순
- 교육대상 : 인천거주 여성 (전과목 20% 범위내 남성도 모집)  
(발건강관리, 건강요가, 스포츠마사지, 기공태극권, 에어로빅, 댄스스포츠는 남성제외)
- 모집분야
  - ▷직업전문교육 : 한식조리실습Ⅱ, 한식조리기능사(오전·야간), 양식조리실습Ⅱ, 일식조리기능사, 김치전문(전통밀반찬), 폐백이바지음식(떡·한과), 한국자수, 왕골공예, 매듭·규방공예, 도배기능사, 도배창업, 한복기능사, 실용한복, 양재기능사, 실용의상, 실용의상연구, 제과제빵기능사, 케익&홈베이킹, 미용기능사, 미용창업, 피부특수관리, PC활용, 컴퓨터 OA, 홈페이지제작, 포토샵, 컴퓨터활용능력(야),웹디자인(야)
  - ▷문화아카데미 : 꽃꽂이, 손뜨개, 생활도예, 홈패션, 동양화묵화, 민요가락, 서예·문인화, 한국무용, 발건강관리, 수지침, 스포츠마사지, 기공&태극권,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건강요가, 수채화, 기초영어ABC, 실용영어, 기초실용일어, 기초실용중국어, 꿈꿈컴퓨터, 특선요리(야), 반찬요리전문(야)
- 교육기간 : 1월 5일 ~ 3월 31일 (3개월)
- 수강료 : 문화아카데미교육 월 10,000원  
직업전문교육 (교육일수기준 : 주2일 이하 월 10,000원 / 주3일 이상 12,000원)

- 준비물 : 신분증, 기별 수강료
- 유아실운영 : 만3세 이상
- 문의 \_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교육팀  
(425-1362, 440-6556~8, women-center.incheon.go.kr)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모집전공 : 경영·무역, 부동산관리
  - 모집인원 : 〇〇명
  -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소정양식-반명함판 사진 3매 부착) 1부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원서교부 및 접수 : 11월 28(월)~ 12월 9(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교부 및 접수처 : 경영대학원 교학부(본관 519호) 오전 9시 ~ 오후 6시

〈최고경영자(CEO)과정〉

- 모집인원 : 〇〇명
- 수업연한 : 1년(2학기), 매주1회(수요일, 18:30~21:40)
- 지원자격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입법·사법·행정의 고위관리자, 비영리 단체의 임원, 기타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본인사진(반명함판) 1매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년 1월 2(월) ~ 1월 27(금)

〈중국통상CEO과정〉

- 모집인원 : 〇〇명
- 수업형태 : 1년과정 2학기제(총30주)
- 모집대상 : 학력제한 없음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공무원
  -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 공·사 기업체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
  - 기타 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하세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 신고기간 : 12월 1일 ~ 2006년 6월 30일 (공휴일 제외)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및 생환자

- 신청 및 신고자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자
  - 강제동원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서식
  -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각 시·도의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신고서 제출방법
  - 피해신고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을 교부함(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 신고서 접수처
  - 각 시·군·구 민원실,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1부
  - 구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구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1부)
  -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1부
  -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

- 신고사항의 처리
  -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 중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등재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음
- 진상조사 신청
  -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개인 제외) 또는 사건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나 2006년 6월 30일 까지 진상조사 신청이 가능함

문의 \_ 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440-375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02-2100-8417~8 http://www.gangje.go.kr)



－ 중구통상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년 1월 2(월) ~ 1월 27(금)

문의 \_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부

(770~8502~3, www.incheon.ac.kr)

### 인천시민대학 강의개설모집 및 강사초빙

• **일반교육과정 강의개설 공개 모집**

－ 모집분야 : 주5일 근무 및 웰빙 시대에 알맞고 특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학생모집이 원활한 과정

－ 지원방법 및 자격 : 강의제안서, 과정별 모집인원, 수강료 및 일반교육과정 강사초빙 지원서류와 동일 서류를 갖추어 제출

• **국가자격증반 강사초빙**

－ 초빙분야 :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실내건축인테리어, 스포츠경영관리사, 주택관리사 유기농관리사, 부동산과정(공인중개사, 부동산공 · 경매사, 컨설팅 포함으로 한과정)

• **강사 초빙**

－ 일반교육과정 분야 : 채색화(서예분야),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검도

－ 학점은행제 분야 : 유화 I, 서양화감상, 생활법률, 화훼원에 개론, 꽃예술문화사, 체력관리와 건강, 스포츠상해 예방 및 처치

• **지원자격**

－ 국가자격증 및 일반교육과정분야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는 졸업후 해당분야에서 5년, 대학교 졸업자는 졸업후 해당 학습과목과 관련한 분야에서 교육경력·연구경력·산업체경력연수를 3년이상 갖추어야 함.(화예학 전공의 경우 졸업이전의 경력도 인정함)

• **전형방법** : 서류전형 (1차) 및 면접시험 (2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2월 14일 (수)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 인천시민대학 교학과근무시간(17:00까지)내에 직접 제출

문의 \_ 인천시민대학 교학과

(441-5394~5, http://www.cecui.com)

### 영상축제 열립니다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영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영상으로 표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상축제를 엽니다.

• **주요 행사 내용**

－ 영상교육 : 미디어란, 애니메이션, 구성(시나리오작성법), 카메라, 편집강의를 통해 영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실습

－ 영상제 : 발표회를 통하여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고 시상식 진행

－ 미디어 놀이 : 미디어를 활용한 놀이 진행

• **행사일시**

1. 비경쟁 부분

－ 미디어 교육 : 12월 23일(금)까지 접수

－ 교육 및 제작 : 2006년 1월~2월

－ 영상축제 : 2006년 2월 11일(토) 오후 3시 발표회 및 시상

2. 경쟁부분

－ 영상제 출품작 신청서 및 시나리오 접수 : 2006년 1월 17일

－ 작품 접수 : 2006년 2월 4일(토)

－ 영상축제 : 2006년 2월 11일(토) 오후 3시 상영



및 시상식

• **행사 장소** : 연수구청소녀수련관 강당

• **접수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인터넷 접수, 팩스 접수

문의 \_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833-2010~2, 팩스 833-2013, www.cafe.daum.net/2003yism)

### 정당발전을 위한 사이버 토론회 열립니다

• **토론주제**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인천시당의 역할과 과제

• **토론기간** : 11월 23일(수) ~ 12월 23일(금)

• **토론참여** : 인천 정당발전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 **참여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인천시선관위’ 또는 http://ic.election.go.kr 입력 ‘사이버 토론광장’  
－ 게시된 발제문에 관한 의견을 ‘답글’란에 게시하고 상호 의견 교환

또한 12월 2일부터(선거일전 180일) 지방자치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이 제한·금지 됩니다.

**선거일전 180일 제한·금지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관광객 유치·투자촉진 등 홍보를 위해 전국을 방송·배부 권역으로 하는 방송·신문광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출연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 이·취임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가능. 다만,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인 행사에는 근무시간 중에 참석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문의 \_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438-3873, http://ic.election.go.kr)

### 제2회 인천 책 독후감 대회 공모

인천의제 21과 인천일보사는 인천책을 널리 알리고, 서가 30cm 설치 운동의 시민적 확산을 위한 대시민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인천책 독후감 공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인천에 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널리 확산되길 원하며 보다 다양한 인천 책이 출간되는 촉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에 대하여 아는 것은 바로 인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공모대회 요강〉

• **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 및 일반시민

• **일시** : 10월 10일(월) ~ 12월 17일(토) 접수

• **심사** : 각계의 전문가로 위촉 2005년 12월 하순

• **공모 분야 및 원고량**

－ 지정공모(초등학생, 중학생) : 지정책자 4종, 200자 원고지 8매 내외

－ 자유공모(고등학생, 대학/일반부) : 인천에 관한 책이면 제한 없음, 원고량 제한 없음

• **지정공모 독후감 대상 서적**

－ 학생부는 다음 4종의 책중 1종을 선정해 독후감 제출  
최근식, ‘온가족이 읽는 인천향토사’(우리교육)  
김중미, ‘깡이부리말 아이들’(창작과비평사)  
현 덕, ‘너하고 안 놀아’(창작과비평사)  
특별취재팀, ‘격동 한세기, 인천이야기’(도서출판 다인아트)  
‘인천 땅 새롭게 밝기’(도서출판 다인아트)

－ 대학·일반부는 인천에 관한 책이면 제한을 두지 않음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450-04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 시티은행빌딩 8층 인천의제 21 사무실 인천 책 독후감 대회 담당자 앞(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온 라인 : 홈페이지에 게시(http://www.iagenda21.or.kr) 전자메일 접수 : iagenda@hanmail.net

－ 유의사항 : 원고에 학생은 학교와 반, 연락처(집, 휴대전화, 전자메일)를 확실히 적어야 합니다. 일반시민은 연락처(집, 휴대전화, 전자메일)를 확실히 적어 주십시오.

• **발표 및 시상 계획**

－ 발표는 2006년 1월 1일자 지역 일간지 및 인터넷, 개별통보  
시상은 2006년 1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 시상내역 : 대상(2명) 인천시장상 / 금상(4명) 인천시의회 의장상 / 은상(8명) 인천시교육감상 / 동상(16명) 인천일보사장상 / 가작(30명 내외) 인천의제21 회장상 / 입선 (50명 내외) 서가운동본부장상

문의 \_ 인천의제21 사무국 (440-1544)

인천책 30cm 서가운동본부 (010-3173-7925)

## 인터넷 신문(Incheon@news) 구독(무료) 신청하세요

인천광역시는 오프라인 신문의 친근감과 뉴스레터 형식의 간명함이 결합된 온라인 타블로이드판 인터넷 신문을 올해 5월에 창간하여 주2회(화·목)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인터넷 신문(Incheon@news)은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고 읽기 쉬운 형식으로 시민(독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배달되는 적극적인 정보서비스입니다. 현재 인터넷신문(Incheon@news)은 600여명의 시민기자단이 활동하며 주변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으며 4만4천여명의 독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신문 구독 및 시민기자 가입신청** |

－ 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회원가입시 인터넷신문 이메일링 서비스 선택

－ 인터넷신문(Incheon@news) http://enews.incheon.go.kr에서 구독 및 시민기자 가입신청

－ 인터넷신문(Incheon@news) 실시간 사이트에서 구독신청 http://enews.incheon.go.kr/main/php/index.php

문의 \_ 시 인터넷신문 편집팀 (440-3286~8)

사업 고민

짜~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일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 · 컬러 기준)**

표4 (맨뒤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이인천에서 남북교류협력까지

을유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착실한 추진과 아울러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어느 해보다 국제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

##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9월 1일~4일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45개국에서 1천2백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대회로 열렸다. 우리 인천은 이번 아시아육상대회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그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유엔산하기구 국내 최초 유치

우리시가 제61차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연례총회에서 ‘UN ESCAP ICT 개발센터(APCICT)’를 우리나라에 유치했다.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ESCAP ICT 개발센터는 ICT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아·태지역 ESCAP회원 및 준회원 국가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 인력에게 무상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2005년은 Buy Incheon, 인천 투자의 해

우리시는 올해를 인천투자의 해로 정했다. 우리 인천에서 앞으로 10년간 1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는 대형사업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Buy Incheon’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민생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우리시에서 진행되는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각 분야별로 주요 투자사업을 발주했다.

## 지하철 연장공사 시작

연수구 동막역에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6.54km 구간에 대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이 2월 19일 착공됐다. 송도연장구간에는 2009년 상반기까지 6개의 역이 들어선다. 한편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과 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을 잇는 연장공사가 9월 13일 착공됐다. 이 구간에는 신북역과 삼산역 등 2개의 역사가 건설돼 2011년 1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 인천대교 기공

송도 남단에서 영종도 사이 해상을 연결하는 인천대교(12.3km)가 6월 16일 기공식을 가졌다. 제2연륙교는 송도 남단과 영종도 사이 해상을 연결하는 폭 31.4m에 왕복 6차선의 교량으로 교각과 다리 상판을 강철 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장교로 건설된다. 인천대교는 시행업체인 KODA사가 1조 1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오는 2009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활동

대한체육회가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국내 유치지로 우리시를 확정함에 따라 우리시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시는 지난 8월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을 조직하고 ‘평화의 제전, 꿈의 제전, 하나 되는 아시아’를 슬로건으로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매립시작

송도국제도시 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4월 8일 기공식을 갖고 시작됐다. 우리시는 2007년까지 매립해 12만평에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아이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학교 부지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경제자유구역청 전환논란

지난 2003년 7월 우리시 송도·영종·청라지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단체로 전환해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시는 경제자유역청을 직접 관할해 인천시민의 희망이자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낸 경제자유구역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 항만공사 출범

인천항만공사가 7월 15일 오전 중구 신흥동 정석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라다마 송도호텔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기념행사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공사창립을 축하했다.

## 남북교류 협력 주도

우리시 각계 인사 42명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공식 초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2박3일간 북한의 평양을 공식 방문했다. 방북 결과 우리시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했으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개최, 강화 철산리와 개풍군 지역을 잇는 길이 1.8km의 연륙교 건설 검토 등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를 챙겨왔다.



# 2005년도 지난호 보기

〈굿모닝인천〉과월호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한해의 뒷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저희 〈굿모닝인천〉을

사랑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기획과 알찬 내용으로

시민여러분을 찾아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1월호

窓2005 | 문화재단 출범 문화도시 출발  
신년사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 영흥도 겨울바다  
인천에서 즐겁게 잘 사는 법 | ① 해수탕과 온천  
조명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추천제품 지정제도  
현장속으로 | 청결오피스골목  
Good Morning 2005 | 새해 시정설계 · 새해 달

라지는 것  
정보뱅크 | 청소년 겨울방학 특강  
한권의 책 | 마이너리티의 희망노래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 해물사랑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⑩ 인천항교  
아름다운 도전 | ① 아라게이트  
디카 속 인천풍경 | 100℃까지 쭉쭉~ 올라라  
인천의 물류이야기 ① |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 인천의 과제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 · 최고, 유일시리즈 | ① 한국의 축구 발상지  
앗,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① 노인을 노리는 악덕상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겨울철 낙상 사고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 · 열세번째 사람 | 이민숙씨  
여기가 거기 | ① 북성동 차이나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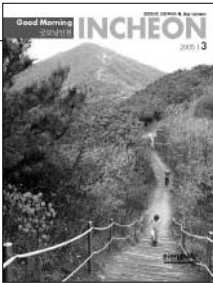
## 2월호

窓2005 | 우리시 청렴도 ‘우수’  
Space View | 우주에서 강화를 보다…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 시네마 & 드라마 투어  
인천에서 즐겁게 잘 사는 법 | 차와 찻집  
함께 나누는 세상 | 21세기미용학원 이미용봉사단  
새로 나온 인천책 | 인천역사문화총서 ⑥~⑭ 외  
조명 | 역동하는 인천, 달라지는 인천  
정보뱅크 | 공동육아어린이집  
동서남북 | 인천광역시 e- 클린센터  
yummy yummy |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⑩ 용흥궁 · 철종외가  
Youthzine | 한 · 일 청소년국제교류  
아름다운 도전 | 스페이스 홀  
디카 속 인천풍경  
인천의 물류이야기 ② | 새해 인천의 물류발전 계획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 · 최고, 유일시리즈 | ② 우리나라 최초의 성냥공장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비만  
앗,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고수의 유인 금융사기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열네 번째 사람 | 서영남씨  
여기가 거기 | 월미도 독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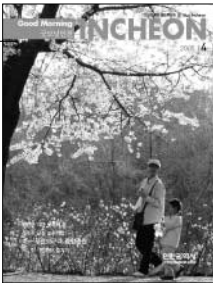
## 3월호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인천에서 즐겁게 잘 사는 법 | 봄철 운동과 체육시설  
제13회 물의 날 | 인천의 ‘물’ 을 생각한다  
문화현장 | 인천의 소극장  
조명 | 기존도심개발계획  
인천의 물류이야기 ③  
동북아의 경제적 부상과 인천의 물류산업 육성  
Youthzine | 국비장학생 선정된 심인정  
인천과 삼일운동 | 3 · 6 인천만세운동  
인천과 삼일운동 | 인천에 있는 3 · 1만세운동 기념물  
아름다운 도전 | (주)STB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⑬ 화도진 (시 지정 기념물 제2호)  
yummy yummy |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디카 속 인천풍경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봄철 피부 관리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 · 최고, 유일시리즈 | ③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이민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열다섯 번째 사람 | 김수경씨  
앗,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결혼정보업체 사기  
BLUE를 입자! BLUE를 만들자! BLUE가 되자! 푸른 물결 2005  
여기가 거기 | 주안염전



## 4월호

4월이야기 | 꽃축제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 포구기행  
함께 나누는 세상 | 급식조리봉사단  
현장속으로 | 중앙공원  
조명 | 남북교류의 관문 ‘인천’  
동서남북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 · 최고, 유일시리즈  
④ 험틀사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우울증  
포커스 | 교원 수학여행 프로그램 팸투어를 다녀와서  
앗,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방문과의  
yummy yummy |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아름다운 도전 | 어울림카페  
인천에서 즐겁게 잘 사는 법 | 색 · 향 · 맛 ‘허브’  
Youthzine | 미국 대통령의 날(The Presidents’ Day)  
인천의 물류이야기 ④ | 인천항을 올바르게 알자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열여섯 번째 사람 | 김명수씨



## 5월호

오월은 푸르구나 | 축제의 계절  
2005 부평풍물대축제  
아름다운 도전 | 자활영농공동체 ‘한마음농장’  
5월은 가정의 달  
For Kids | 어린이도서관  
For Youth | 청소년기자단  
For Adult | 평등부부의 일상  
For Silver | 노년의 작은 행복  
인천의 물류이야기 | ⑤ 물류전문인력 양성  
yummy yummy |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인천 200% 즐기기 | 인천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레포츠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⑭ 녹청자 도요지(국가지정 사적 제 211호)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대장암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 · 최고, 유일시리즈 | ⑤ 현대식 목장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열일곱 번째 사람 | 이윤희 재능대 교수  
여기가 거기 | 송도유원지



## 6월호

窓 2005 | 유엔 산하기구 국내 최초 유치  
조명 | 제2연륙교 착공  
인천에서 잘 먹고 즐겁게 사는 법 | 삼림욕장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 영종도 예단포  
아름다운 도전  
인천대학교 학교기업 클린에어나노테크  
동서남북 | 시민참여형 인터넷 신문  
‘incheon@news’  
이슈 | 인천대 국립대 전환  
6 · 25전쟁 55주년 | 1950년 6월 25일 부터 9월 15일까지 인천의 정황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요통  
yummy yummy |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정보뱅크 | 노래교실  
Youthzine | ‘파인트리’와의 만남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⑮ 초지진(사적 제225호), 덕진진(사적 제226호)  
인천의 물류이야기 | ⑥ 부가가지 물류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 · 최고, 유일시리즈 | ⑥ 최초의 서구식공원 자유공원  
기고 | 국민건강보험 공당과 노인요양 보험제도  
앗,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텔레마케팅 사기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열여덟 번째 사람 | 백하은 사장



## 7월호

窓 2005 | “희망과 변영의 다리”

Cool & Cold~ INCHEON  
그 바다… 海 맑다

백령도 / 대청도 / 연평도 / 덕적도 / 자월도 · 승봉  
도 · 이작도 / 영흥도 · 선재도 / 신도 · 시도 · 모  
도 · 장봉도 / 용유도 · 무의도 / 강화도 · 석모도 ·  
볼음도 · 주문도 · 교동도 / 섬으로 가는 배



VIVA INCHEON | 동산고 ‘청룡’ 품다  
브리핑 | 인천시대표단 북한 방문성과  
현장속으로 | 공무원 중소기업현장체험단  
앗,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인터넷 쇼핑몰 사기  
Youthzine | MOO 미국대사관 초청 방문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 · 최고, 유일시리즈 | ⑦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  
인천의 물류이야기 | ⑦ 물류 중심도시 건설  
여기가 거기 | 부평도호부청사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열아홉 번째 사람 | 이일호 씨

##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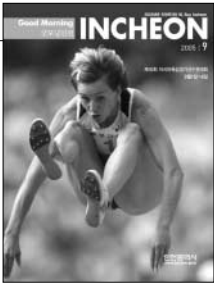
여름 축제  
제 3회 인천해양축제 (3rd Incheon Ocean  
Festival)  
무의축제  
여름방학 특집 | ‘물’ 관련 체험학습장  
우현(又玄) 탄생 100주년 기념  
고유섭의 생애, 국제학술심포지엄 & 전시회  
조명 | 서구 외국어특구  
광복60년 | 8월15일 인천의 모습  
yummy yummy |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인천에서 잘 먹고 즐겁게 사는 법 | 약수터  
프리즘 | 담장없애기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⑯ 부평도호부청사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 2호)  
앗,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할인회원권 사기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 · 최고, 유일시리즈 | ⑧ 최초의 해군사관학교  
인천의 물류이야기 | ⑧ 인천항만공사 출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장염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스무 번째 사람 | 신인미 마리 임마누엘 수녀님



## 9월호

窓 2005 | 조용필, 아시아경기 유치 홍보 나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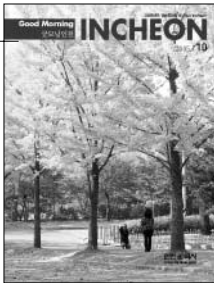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세계는 아시아로, 아시아는 인천으로!  
성황봉송, 개 · 폐회식행사  
경기일정  
북한 참가뉴스  
제4회 인천음식축제



2005 인천하늘축제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㉗ 강화 부근리 지석묘 (사적 제 137호)  
강화고인돌축제  
2005 인천국제악기전시회  
2005 능허대축제  
제18회 인천노동문화제  
인천의 물류이야기 | ⑨ 물류중심지 인천의 위상  
취영청 한가위 ① | 동네에서 장보기, 인천의 특산물  
취영청 한가위 ② | 전통공연 즐기기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 · 최고, 유일시리즈 | ⑨ 최초의 교회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스물한 번째 사람 | 임재경 박사

## 10월호

화보로 보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각 군 · 구 가을축제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⑮ 논현포대시 (유형문화재 제 6호)  
정보뱅크  
① 취업도우미 동인천고용안정센터  
② 창업도우미 인천 소상공인지원센터  
인천의 물류이야기 | ⑩ 6시그마 도입  
현장속으로 | 이색 한국어교실  
월미도 워터스크린 분수대  
인천의 가을  
① 남동구 수산동의 산 ②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 best 5 ③ 국화 옆에서  
Youthzine | 청소년 평화대장정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 · 최고, 유일시리즈 | ⑩ 최초의 근대식 화폐제조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스물두 번째 사람 | 필증화 씨  
기초지자체 사이버쇼핑몰 개통  
여기가 거기 | 동인천역 & 수도국산



## 11월호

窓 2005 | 인천국제디자인공모전  
멀티브리핑 | 송도국제도시의 7가지 풍경  
인천 가을에 빠지다 | 산사(山寺) 찾길 기행  
가을 속 문화기행  
예술 혼이 숨쉬는 강화도 아뜰리에  
2005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미디어아트 전시 溫 & On  
인천문화재단 특별기획  
21세기로 열린 창 인천미술展  
쟁점 | 경제자유구역청 전환 문제  
인천의 물류이야기 | ⑪ 6시그마  
Youthzine | 기타큐슈 청소년국제교류  
굿모닝 리포트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경과  
세 · 상 · 만 · 사 · 仁 · 川 · 萬 · 寫 | 자장면도 순서가 있다  
인천사랑 | 미국 캘리포니아 임성숙 씨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⑰ 창영초 교사 · 영화초 본관동 · 기독교사회복지관  
인천에서 즐겁게 잘 사는 법 | 우리시의 친환경농산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노안 교정수술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 · 최고, 유일시리즈 | ⑪ 최초의 근대적 우편업무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스물세 번째 사람 | 서 희 씨







구불구불한 마을길과 납작 엎드린 초가집들  
그리고 병풍처럼 치켜 있는 문학산의 옛 자태  
(화도진도서관 제공)

비록 해발 232m의 나지막한 산이지만 문학산은 인천의 진산이자 뿌리이다. 그 옛날 비류가 천년대국의 꿈을 지니고 미추홀의 도움을 정했던 곳이 문학산이다. 1960년대 만해도 사이다 한 병에 삶은 달걀 싸들고 소풍가던 ‘놀이동산’ 이었다. 연수구가 개발되기 전만해도 ‘학(鶴)’자 돌림의 산골마을이 산 주변에 자리 잡고 있던 풍치 좋은 곳이었다.



고층 아파트로 앞이 가려진 오늘날의 문학산.  
산 정상에 희미하게 군부대의 모습도 보인다.  
(2005 · 사진가 최용백 작품)



# 溫故知新



온고지신 -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새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모양은 “케익”이며, 그 맛과 내용물은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  
삼국시대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떡케익전문기업 떡보의하루 “떡케익”  
이젠 떡케익으로 기쁨을 함께하세요!



예약주문이나 하루 전 주문하시면 인천, 부천 전 지역 무료배달해드리며,  
일반떡, 혼수떡, 돌, 백일, 답례떡등 예약하시면 제작하여 무료배달해드립니다.

문의전화 1544-1582